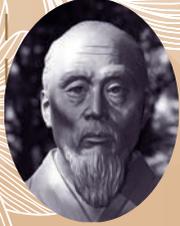


아우구스티노
서상돈



장면
요한



최정숙
베아트리체



김익진
프란치스코



김홍섭
바로



2016년 봄
계간 51호

평신도

평신도

2016년 봄
계간 51호

인사 회장 인사말 **만남** 윤광렬 수원평협 회장·이기현 주교·레지오 마리에 허정애 단장 **특집** 자비의 희년에 생각해 보는 용서, 그리고 화해 **나눔**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휴식** 전주교구 시기동본당 신성공소 **이야기** 신앙 체험 수기 **배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순교자들의 영성·영화음악 세상·평신도 양서 **소식** 교구평협·회원단체

‘모범적인 평신도 삶’ 전파 운동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관

불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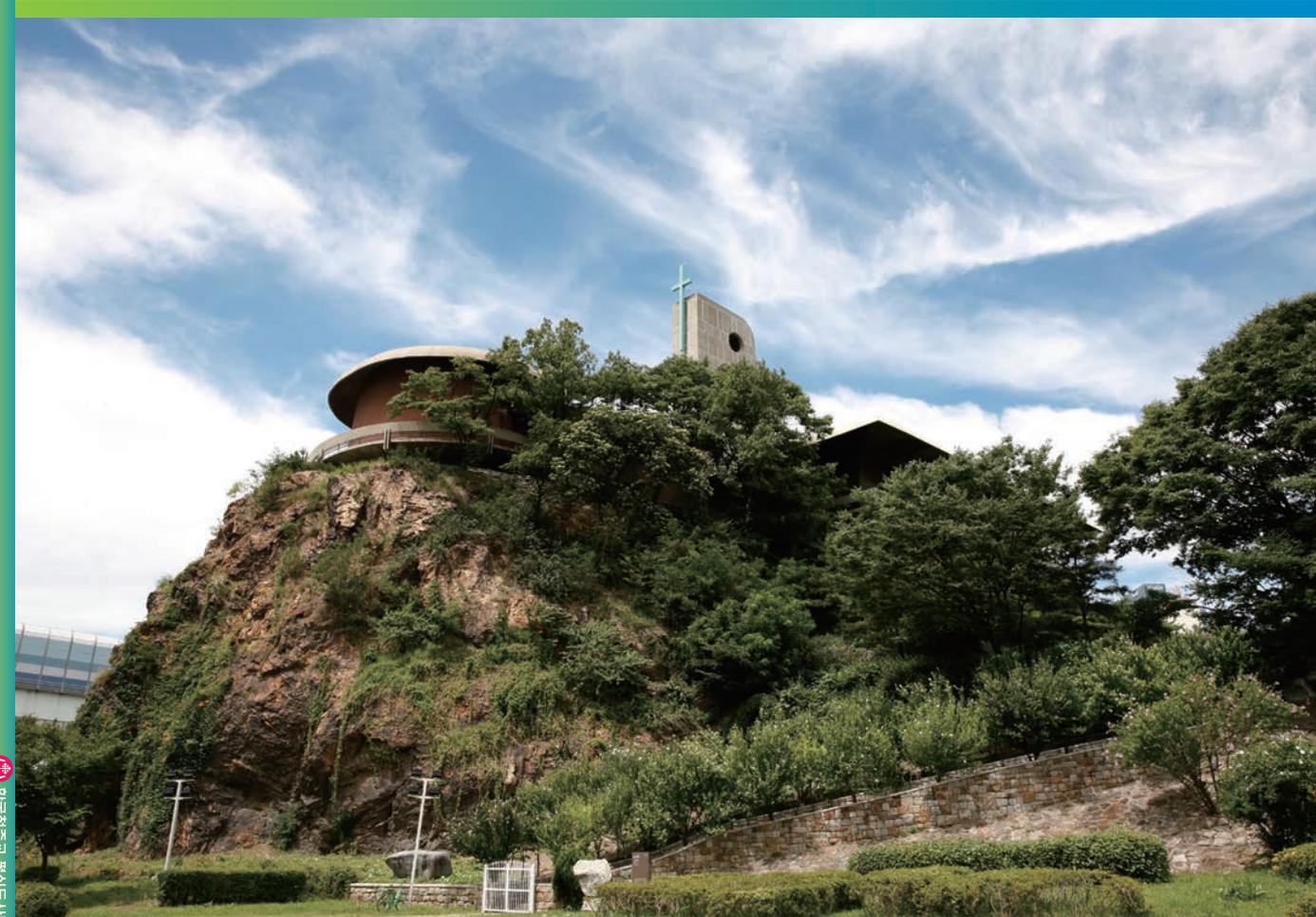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향기가

되어

- 김익진 프란치스코 교육가, 사상가, 문필가.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 등 많은 번역서와 기고문을 남겼다.
- 김홍섭 바로로 법관이자 가톨릭 사상가. 청렴한 생활,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바른 재판으로 '사도 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최정숙 베아트리체 제주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평생 교향 제주의 교육을 위해 몸 바쳤으며 의원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진료에도 힘썼다.
-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대구대목구 초기의 대표적 평신도. 일생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노력했고 국제보상운동 등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 장면 요한 정치가이자 교육가, 문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제1공화국 국무총리와 부통령,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냈을 뿐 아니라 교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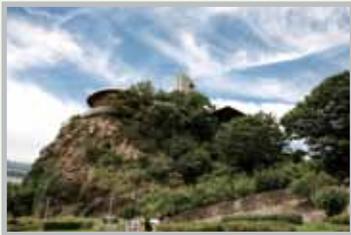


평신도



2016년 **봄**
계간 51호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신동수 세라피나, 오완수 바오로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사진/ 한정엽 베드로

1866년 병인박해 피바람에
사학죄인으로 몰린
어질디 어진 신앙선조들이
머리를 잘린 곳
절두산 순교성지!
병인순교 150주년
한강은 말없이 흐르고
피로 물들었던 봉우리에도
봄풀이 돌아나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이기현 주교 인터뷰 / 배봉한
12 평신도가 된다 / 권지영
- 특집 16 자비의 희년에 생각해 보는 용서, 그리고 화해 / 서상덕
- 나눔 20 평신도 연구 / 조종근
22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 유영훈
- 휴식 25 전주교구 시기동본당 신성공소 / 김규현
- 이야기 26 신앙 체험 수기 / 이대현
- 배움 32 인문학 강좌 / 김문태
35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 황인수
39 수도회 영성 / 윤종걸
42 순교자들의 영성 / 김길수
46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50 아가다의 음악편지 / 양인웅
52 영화음악 세상 / 정성엽
54 평신도 양서 / 류주희
- 소식 56 교구평협 · 회원단체

인사

회장 인사말

내가 베푼 자비는
하느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십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인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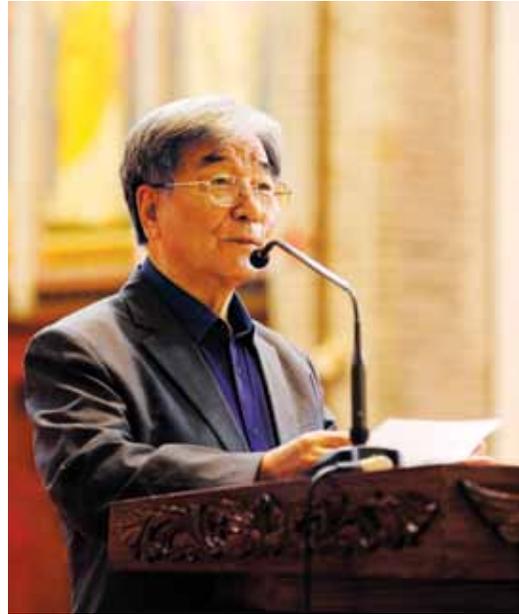
누구 한 사람도 우리가 손을 벌릴 곳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의 작은 봉급을
쪼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
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
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5-36).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고 하느님으로 살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부터 자비의 특별 희
년이 시작된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특별 희년의
주제는 루카 복음 6장 36절의 “아버지께서 자비하
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로 정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처럼’이라는 단어
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 희년의 주제에서도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처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5)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도 우리 ‘치
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1). “제가 세
상에 속하지 않은 것 ‘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요한 17,16).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열면 떠
오르는 말씀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저의 생각이 짧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럼’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으
로 살지 말고 하느님으로 살기를 강하게 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는 것이 ‘답게 살겠습니다.’를 실행
하는 길입니다. 사랑이신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겠
다는 우리 한국 평신도들에게 계속되는 격려로 용
기를 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
의 기쁨」을 첫 선물로 주신 이후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지구 가족이 되어 살 것을 권고해 주셨습
니다. 이번에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심으

로써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이 큰 사랑에 거듭 감사드릴 뿐입니다.

자비는 베푸는 것이라기보다 떠받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준비
까지 되어 있는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느님
처럼 자비롭게 산다는 말은 탕자를 기쁨의 잔치로
맞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잇속을 챙길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도
잘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형제
가 있다면 그의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
입니다. 착한 사람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
려 주시는 것처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밭의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상할까 염려하
시는 것처럼 형제를 선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삶이
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잘못을 묵하지 않고 고해성
사로 용서를 받듯이 나에게 잘못된 이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이신 끼아라 루빅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일치를 저해하는 것으로
마치 지옥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말로 경계하
였습니다. 형제의 행위를 내 잣대로 판단하기에
앞서 용서해야 합니다.

자비는 베푸는 것이라기보다 떠받치는 것입
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
에 오실 때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
신이 오실 자리로 말구유를 택하셨습니다. 흔히
부자가 가난한 형제에게 베풀려고 행하는 자선처
럼 넉넉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빠진 인류를 떠받들고자 가장 가난한 모습으
로 오신 것입니다. 특히 불편하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죄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주신 분이십니다.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1970년대에 서울에 왔습니다. 촌사람인
나에게 고층 빌딩이나 복잡한 교통, 바쁘게 사는
모습들은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확연한 구분이 더 많이 낫설
었습니다. 심지어 본당에 미사를 가셔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보다 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을 담임했는데 내 반 학생 수는 80명이 가
가였습니다. 서울 지리도 아직 잘 모르던 나는 그 기
간 동안에 모든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내
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인 가정도 있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나 가족구성으로 볼 때 눈물 나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문을 마친 뒤 아내와
나는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은 잊고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우리가 손을 벌릴 곳이 없
음을 확인하고 나의 작은 봉급을 쪼개 쓰기로 결
정했습니다. 덕분에 임신 중이었던 아내와 내가 하
루 한 끼를 거르게 되었지만, 걱정 없이 학교를 다
닌 제자들을 보던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에서 갚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서도 가득한 행복으로 갚
아 주심을 느꼈습니다. 나누는 행복을 경험한 것
입니다.

지금도 잘 살펴보면 내 것을 함께 쓰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을 채무자로 하는 부자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윤광렬 사도 요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세례 받고 나서부터 모든 삶이 은총이었습니다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3월 6일 주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자리 잡은 성요한성당에서 윤광렬(61세) 회장과 만났다.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들려주신 윤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분당성요한성당의 아름다운 야경

윤 회장은 올해 본당설립 23년을 맞은 성요한성당의 산 증인이다. 본당 설립 후 첫 세례자 모집 때 교리를 배워 그해 성탄절 미사 때 세례를 받았다. 자녀 결혼도, 집안의 대소사도 다 본당에서 치렀다. 주일미사 때 성체분배자로 봉사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본당 총회장 일을 맡았다. 본당에서 세례 받은 신자로 총회장을 지낸 첫 사례라고도 했다. “저는 평협 회장 일은 초보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허허.”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던 윤 회장은 “먼 길을 왔으니 우리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갑시다.”라며 교외의 한 식당으로 이끌었다. 맛있는 돼지고기를 내놓는다는 그 집은 한낮에도 손님들로 차고 넘쳤다. “제가 신부님, 수녀님을 모시고 대접해 드렸더니 이게 무슨 고기냐 하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수월갈비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기가 있었네요.’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긴 그럴 만도 했다. 윤 회장이 직접 갈매기살을 숯불에 익혀 지글지글, 노릇노릇 육즙이 흐르게 한 뒤 가위로 능숙하게 잘라 생마늘과 함께 곱고, 뒤집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내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가족이, 형제가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랑 가득한 얼굴, 영락없이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다.

“나는 죄짓고 돌아온 둘째아들”

“어찌다 세례를 받게 되셨는지요?” 우문에 현답이 흘러나왔다.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요. (웃음) 코흘리개 때부터 장호원성당에서 놀았어요. 신부님이 주시는 우유도 많이 얻어먹었지요. 그때는 어렵고 철이 없어서 세례 받을 생각은 못했어요. 불교집안이라서 4월 초파일이면 할머니 따라서 절간에 쌀 한 말씩 메고 산으로 갔지요. 군대 가서는 주일날 훈련 안 받고 좀 쉬려고 성당에 갔어요. 군종신부님이 세례 받으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즐기만 했는데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신부님이 그날 세례자들에게 막걸리 한 말을 사시면서 그래요. ‘이 친구가 세례 받아야 하는데, 만 놈들이 받는다.’고. (웃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집사람이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천주교로 받으라고 했어요. 집사람은 세례 받고 나서 반장도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집사람이 세례 받으라고 했지만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대고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있다.’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참 힘들었는데, 옆에 형님이 성당에 나가보자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본당 초대 신부님이신 김영배 사도요한 신부님께 세례 받았어요. 오늘 복음처럼 죄를 많이 짓고 돌아온 둘째아들이었죠.

제 아이들도 전부 요한성당에서 세례 받고, 봉사하고, 성가대 하고 그랬어요. 큰딸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살아요. 유학 가서 성당에서 봉사활동하다 청년회장과 눈이 맞았어요. 결혼허락 받으러 왔기에 제가 물었죠. 세례명이 뭐냐? 사도요한입니다. 그럼 결혼해라. (웃음) 큰 손자가 루카, 작은 손자가 안젤라예요. 작은딸은 인천에 살면서 제 사업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윤 회장은 성요한성당 초대 주임신부였던 김

영배 사도요한 신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주임신부의 세례명을 따라 그대로 사도요한이 되었다고 했다. 김영배 신부는 2003년 1월까지 10년간 분당성요한성당을 사목하며 본당 신축의 대역사를 이뤄낸 사제다. 성요한성당은 한국 최대, 동양 최대 규모의 성당이다. 다양한 회합시설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지금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잦은 본당이다. 곳곳에 아름다운 성미술 작품들이 많고, 성당 야경 또한 본당의 명물로 꼽힌다. “은퇴하고 경기도 광주에 계신 요한 신부님을 가끔 찾아뵙요. 저보고 아들처럼 ‘요한이 왔냐?’ 그러시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신부님 앞에선 아직도 어린 것 같아요.”

성지순례 활성화 적극 추진 중

성당 커피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처럼 노장청이 어우러진 활기찬 분위기가 흐른다. 커피숍은 성당에서 운영하는데, 한 잔에 1,000원이라고 했다. 봉사자들이 서빙을 하고 수익금을 사제 양성에 보태기 때문에 주임은 물론 평일에도 교우들이 애용한다고 했다.

“어찌다 평협 회장을 맡게 되셨나요?”

“실은 바빠서 안 된다고 하고 도망가려다 잡혔어요. (웃음) 성요한성당이 수원교구 분당대리구 대리구좌성당이거든요. 요한성당 총회장을 맡게 되면 대리구회장을 겸임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구 평협 상임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본당 총회장 일 끝나면 이제 안식년을 가져야겠구나!’ 속으로 롤러랄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교구장 주교님으로부터 봉사하라는 명을 받고 메르스와 함께 시작하게 됐지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모든 게 부족해요. 제가 회장이지만 봉사자들이 즐겁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게 기도하고, 협조자로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교구장님, 총대리주교님, 보좌주교님, 그리고 모든 본당의 사제들이 사목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을 위해
로마의 바티칸
성 베드로성당에서

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신도라서 신부님을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이끌 수 있게 도와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 왔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는 아무 것도 모르니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수원 평협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성지순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4대 교구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의 미래 50주년의 표어가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입니다. 2016년 사목 교서의 실천목표는 '하느님의 자비에 참여하고 증거하는 신앙인'이고요. 올해는 또 자비의 희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곳곳에 성지가 조성돼 있는 성지순례의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인박해 25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를 통하여 성인들을 현양하는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또 하나, 자비의 희년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6개 대리구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수원교구 210개 본당에서 바자회를 개최해서 그 수익금을 해외 선교하는 신부님과 해외난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월에 죽산성지 영성관에서 모든 본당 회장들이 1박 2일간 참여하는 수원교구 총회장 연수 때 환경보전과 관련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 8일에는 남양 성모성지에서 개최되는 생명수 호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초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가 재임하던 1969년 3월23일 초대 조성지 프란치스코 회장이 한중훈 스테파노 지도신부를 모시고 출발해 윤 회장이 21대 회장이다. 윤 회장을 비롯해 6개 수원대리구 회장과 주교좌성당 총회장, 홍보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사무장(상근)과 부회장(평신도단체협의회장, 여성연합회장) 2명이 수원교구 평협의 봉사자들이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 정기 회합이지만 대부분 여러 단체의 간부를 겸임하고 있어 가족처럼 자주 만난다고 한다. 윤 회장의 수첩에도 쉬는 날 없이 봉사활동과 회합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회장을 맡고 나서 제가 특별한 사업을 벌인 것은 없어요. 우선 전임 봉사자들이 이루어놓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자주 올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늘 청원하지요."

신부님 돌아가시면 3일장 같이 지내

윤 회장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온 것이 미사참례와 기도라고 했다. 성요한성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 새벽미사, 장례미사는 아침 8시에 새벽미사와 별도로 언제나 가능하다고 한다.

"평일마다 새벽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본당처럼 좋은 성당이 없어요. 수원교구 평협은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같이 지냅니다. 수원 평협의 아름다운 전



올해 1월 22일 개최한 수원교구 평협연수

통입니다. 신부님은 평신도들의 영적 부모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 돌아가셨다고 연도만 바치는 것은 평신도의 도리가 아니죠. 돌아가신 분에게도 좋지만 남아 있는 사제들도 좋아하세요. '회장님, 지금까지 계세요. 오늘도 나오셨어요.' 그러면 힘이 하나도 안 들죠. 그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삼우제와 1주기 미사도 같이 지냅니다. 수원교구 신부님들은 돌아가시면 미리내 성지에 김대건 신부님과 같이 안장됩니다. 은총이지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 어디 있나요?"

사진촬영을 위해 성모상이 있는 성당 마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요한성당 앞 정원에 모셔진 성모상의 이름은 '은혜의 성모상'으로도 불리는데, 국내에 있는 성모상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모상이라고 한다. 전체가 백색 대리석으로 높이가 3미터나 된다.

"제 인생은 세례 받은 이후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뿐이죠. 그런데 되돌아보니 우리 본당에서 세례 받은 이후 제 삶이 다 은총이었어요. 그러니 평생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연도까지 받을 사람이예요. (웃음) 제가 이번 사순시기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셨어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만, 내가 생각한 이웃만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만나온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었어요. 그러니 행복이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 어디 있나요?"

바로로 사도는 사도요한을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다. 사도요한은 서기 100년경에 90살의 나이에 사도들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았다고 전해 내려온다. 윤광열 회장도 그렇게 본당에서 평생을 봉사하다 편안하게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이기현 주교 인터뷰

무자비에 앞서 무관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70세)를 2월 26일 의정부교구청에서 만났다. 이 주교는 1947년 12월 31일 평양에서 태어나 가톨릭대학교를 졸업, 1975년 12월 8일 사제품을 받았고, 천호동본당 보좌를 시작으로 1978년 군중신부로 임관되어 1982년 전역, 잠원동본당 주임과 일본 동경 한인천주교회 주임 등을 거쳐 서울대교구 사무처장으로 일하다가, 1999년 12월 14일 주교품을 받고 제2대 군중교구장으로 사목했다. 2010년 2월 26일 의정부교구장으로 전보되어 사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고 있는데, 자비는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 거지가 많았어요. 거지가 찾아와 한 푼 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잘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눔이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자상하셨어요. 놀러 데려가 주시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퇴근할 때는 과자를 사 가지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중학교 들어가서인가 세계명작들을 읽었는데, 「장발장」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미리엘 주교님이 촛대를 훔쳐 간 장발장을 용서해 주고 너그러운 대해 줄 때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다른 요인들도 사제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멋있는 사제, 자비를 베푸는 사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고, 사제직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를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자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도, 자비가 하느님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자비에 한 발 다가가지 못하고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들 스스로도 신앙인으로서 평화롭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인 듯합니다.

자비의 희년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요청이라고 봅니다. 자비를 체험함으로써 행복해지라는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거나 없애려면, 전 세계 그리스도 신자들만이라도 자비에 대해 생각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황님께서 생각하신 듯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 특별 희년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여깁니다.

우리 사회가 자비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자비에 앞서 무관심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평화의 날 담화에서도 언급하셨고 많은 문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회의 많은 사건이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도 무관심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잘못들과 소홀히 하는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며 무관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사회가 남북갈등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남북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듯하지만, 이런 남북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남갈등부터 극복해야 할 듯합니다. 사실은 상대방의 세대나 환경 등을 생각하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념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나 살아 온 환경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존중해 주고 또 나하고 다른 것들을 인정해 줄 때 남남갈등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년인 2014년에 의정부교구 설정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때 10주년을 맞이해서 사목에 기틀이 될 수 있는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생각도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느꼈지만, 신자들에게 사제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자비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자비에 앞서
무관심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주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구 안에는 어려운 본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본당들에서 신부님들이 자애로운 사목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교 방법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에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소공동체를 사목 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소공동체의 결실이, 나눔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소공동체가 사회사목 안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목방문을 다니거나 견진성사를 주러 본당에 가면 교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구에서는 '자비의 특별 희년'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의 의미와 특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비의 실천으로 개인적 차원, 교회 내적 차원, 교회의 사회적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짐처럼 서술하였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느님 자비를 묵상하고 체험하고자 참회와 고해성사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순례와 전대사를 받아 영적 쇄신의 계기로 삼으며, 웃는 얼굴과 친절함 태도로 선교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교회 내적 차원 곧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 되어야 할 교구와 본당에서는, 주교좌 성당과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 '자비의 문'을 지정하고, 지구와 본당 중심의 연수와 교육으로 자비의 선교사를 양성하며, 연 예산 중 사회사목 예산 10% 실천으로 사목활동을 쇄신하고 자비를 실천하자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거노인을 위한 쉼터 마련, 결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개설과 운영, 아

나바다 장터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주민·새터민·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기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표지가 되어야 할 교회의 사회적 차원으로는, 자선활동을 아시아와 세계로 향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족화해학교 참여하기,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기, 미사 전 묵주기도와 밤9시 기도와 강복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생태적 고해성사의 실천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걸어서 성당 가기, 탈핵 운동 참여도 제안하였고요. 교구 모든 정책에 생태적 지속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적 실천 모범 본당에 상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회복을 위해 무관심을 극복하고, 사회 문제에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현장으로 향하는 순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태적 고해성사'란, 탐욕과 부주의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창조질서를 망가트린 것도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생활습관을 청산하고자 실천하는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첫영성체 이후 고해성사는 자주 봐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큰 죄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아주 평화롭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교가 된 지금도 고해성사를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사를 보기 전에 삶을 돌아켜 보며 내가 자주 범하는 죄나, 나의 인성과 성향의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을 고쳐 나가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에 고해성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해성사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줄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사제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신자들도 고해성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고 맑게 해주는 성사라고 생각하고, 자비의 희년이 고해성사에 좀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3월 27일이 부활 대축일이지요?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지난해에 주교들의 방문으로 가능성을 열었던 부활 대축일에 평양에 사제를 보내 대축일 미사를 드리는 문제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듯합니다. 남과 북이 똑같이 문을 열지 않을 듯합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모든 문이 꼭 닫혀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정치권에서도 자성을 하게 되고 종교계와 지성인들도 대화의 필요성을 새롭게 부각하게 될 듯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대화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안 되면 민간 차원에서 나서거나 하여, 화해를 위해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가 나서도 힘들다고 봅니다.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정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교구에는 젊은 신부님들이 많아서 함께 사회문제를 공부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당에서는 이런 일들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하고 감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교리를 설명하며 설득력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비의 희년에 이주민과 새터민 같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자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견진성사를 주러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제안으로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에 발맞추는 결정들을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제들이 나서기보다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민족화해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정들을 끌어내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꿉니다. 약간의 자비로도 세상은 덜 차갑고 더욱 정의로운 곳이 됩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비의 특별 희년에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여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가 된다

레지오 마리아 *Legio Mariae*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서울 명동성당에서 청년 레지오 단원으로 2년 동안 활동했었고, 지금은 협조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 봉천동에 있는 공부방에서 중학생 영어를 가르쳤는데 함께 공부했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고3이 되면서 공부방과 인연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고백부터 하면서 레지오 마리아의 허정에 엘리사벳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버거웠었다고 당시 제 느낌을 말씀드렸더니, 1단이라도 온갖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남 이후 저는 다시 기도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 레지오 마리아란 무슨 의미이고, 목적은 무엇인가요?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라틴어인 이 명칭은 ‘마리아의 군단(The Legion of Mary)’이라는 뜻이며, 이 명칭을 비롯한 주요 용어와 조직의 형태는 고대 로마, 정확히 로마 군단(Legio Romanae)에서 사용하던 것을 따왔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해 설립된 영적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충지휘하시는 분은 성모님이며, 레지오 단원들은 충성과 덕행과 용기로 위대한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단원들은 교회의 지도에 따라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60주년 기념 전국 선교 신앙대회(2013. 5. 25., 광주)

❖ 한국에는 레지오 마리아가 언제 도입됐나요?

한국에는 지난 1953년에 광주교구 산하 목포산정동본당에서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광주교구장 서리었던 현 하롤드 신부(제5대 광주교구장)의 지도로 ‘치명자의 모후’ 브레시디움과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장됐습니다. 서울에는 1955년 8월 흑석동(구 명수대)본당에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첫 번째로 설립됐습니다.

이어 1957년에는 혜화동 본당에 ‘상지의 좌’ 꾸리아가 설립됐고, ‘상지의 좌’ 꾸리아는 1960년 3월 한국 무염시태 꼬미씨움으로 승격됐으며, 1974년 9월에는 레지아로 다시 승격됐습니다.

이후 한국 레지오는 도입 25주년을 기념해 발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곧칠리움 경축 사절로 내한한 맥그레드 신부가 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서울 레지아를 국가 최상급 평의회인 세나투스로 승격시킬 것을 곧칠리움에 제시, 1978년 12월 23일 서울 대교구에 정식으로 세나투스가 승격 설립됐습니다.

❖ 레지오 마리아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레지오는 선배 단원과 후배 단원으로 2인 1조가 되어 브레시디움에서 매주 배당되는 활동을 완수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완수한 활동은 브레시디움 주 회합 때 매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레지오는 보통 ‘후배 단원이 선배 단원들과 함께 다니며 활동하면서 익히도록 하는 방법과 브레시디움에서 보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도제제도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활동은 레지오 내부적으로는 단원의 자질을 계발하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활동이라고 하면 레지오가 연상될 정도로 레지오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인으로 신심이 깊은 자매와 형제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과거 어떤 자매의 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병문안을 갔을 때 일입니다. 레지오 단장 시절, 제가 돌보았던 레지오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딸의 아픈 모습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한 모습으로 기도를 부탁한 자



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저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자매가 본인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열 마디의 말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밖에 레지오에서 하는 실질적인 활동은 입교(개종)권면, 예비신자 돌봄, 교우(신영세자, 쉬는 교우, 전입자, 혼인장애자) 돌봄, 어려움을 겪는 이(교우 및 외인 상가, 이재 및 빈곤자, 병원 및 복지시설) 돌봄, 레지오 확장, 본당 협조, 교회 출판물 보급, 자연 보호, 거리 청소,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입니다.

❖ 레지오 마리아는 서울무염시대 세나투스과 광주 세나투스, 대구 세나투스로 나뉩니다. 이 중 서울무염시대의 규모가 가장 큼니다. 이곳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움직임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국으로부터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서울무염시대 세나투스는 서울을 비롯해, 원주, 춘천, 청주, 인천, 수원, 대전까지 담당합니다. 서울 세나투스에서 직접 관할하는 레지오 활동 단원들만

15만 명 가량 되고, 협조단원까지 더하면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주 회합을 하는 것을 '쁘레시디움'이라고 하는데, 10개의쁘레시디움이 모이면 '꾸리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규모의 본당은 2~3개의 꾸리아가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 20~30개의쁘레시디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꾸리아를 모아서 관장하는 곳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관장하는 단체를 '꼬미시움'이라고 하는데, 상급단체로 보면 됩니다. 원주를 비롯해 춘천, 수원 등은 각 시별로 관장하는 사람들을 '레지아'라고 부릅니다. 서울은 동서울, 중서울, 서서울로 나뉘어 있고, 서울 세나투스가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단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나요? 어떻게 해서 단장이 되셨나요?

단장은 3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데, 투표를 합니다. 꾸리아 간부들이 모여서 꼬미시움 4간부를 선출하고, 그 4간부가 모여서 레지아 간부를 선출합니다. 레지아 간부들이 모이면 90명가량 되는데, 이들이 선거해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임 단장과 제가 후보로 올랐고, 투표 결

과 제가 당선됐습니다. 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연임 기회가 있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말에 최종 선출됐습니다.



허정에 단장

사실 저는 서른한 살부터 레지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순을 훌쩍 넘겼으니, 30년이 넘는 시간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레지오에 몸담고 있으니, 꾸리아 단장부터 꼬미시움 단장, 레지아 단장 등을 거쳐 서울 세나투스 단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꾸준히 평의회 간부를 하면서 일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거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대에 이어 제가 두 번째 여성 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 30여 년간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가요?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냉담교우를 찾아다니며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꾸준히 활동을 나갑니다. 실질적인 레지오를 체험하려고, 현장체험을 통해 레지오를 느끼고, 그 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병원을 주로 다니며 주로 냉담교우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위암으로 투병 중인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오랫동안 냉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암 투병에 이어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동시에 겪고 있었는데, 특히 타인에 대한 적대심으로 고통받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위암 수술이 잘 끝나 퇴원하게 되면서, 저는 병원 방문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형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는 전직 경찰로서 아내와 다 큰 자녀들도 있었는데, 돌봄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아내 역시 제게 속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하나둘씩 시작하면서 가족 전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돌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그 가족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나면 끝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성모님이 바라시는 레지오 마리아의 진정한 활동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석같은 레지오 단원들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임기 3년 동안 단장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레지오 활동을 하다보면 내부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레지오 활동에도 스며들어 활동대상을 만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숨어 있는데, 가정방문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레지오 단체가 커지면서 발생한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본당의 영적지도 신부님과의 연결고리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레지오 단체의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간혹 사제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각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이끄는 꾸리아장부터 본당의 영적지도 신부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현재 서울 세나투스 담당이신 정영진 도미니코 신부님을 도와 큰 크럼을 그리고 세부적인 작업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희년에 생각해 보는 용서, 그리고 화해

용서, 그대로 주님의 것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징표는 무엇일까? 자비의 희년을 지내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구체적 실재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용서

지금 생각해 봐도 그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그에게는 떠올리기 싫은 고통일 수 있지만...)

그를 처음 알게 된 건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던 유영철(45세)로 인해서였다. 2003~2004년 사이 무려 21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 그 연쇄살인범을 따라다니는 이름 가운데 그가 섞여 있었다. 고정원 루치아노 씨(73세), 그가 주인공이다.

하루아침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손에 노모와 아내, 4대 독자 등 온 가족을 잃은 사람. 그가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할 법한 유영철을 용서하고 구명탄원서를 냈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구명활동을 펼친 사실 때문이다.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나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음 한 켠에는 도무지 사그라지지 않는 의구심이 파리를 틀고 떠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은 고 씨를 취재하면서 한동안 나 자신을 괴롭히기까지 했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잘 포장해서 기사거리나 만들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시쳇말로 진정성 문제가 달린 일이었던 것이다.

고 씨 관련 기사가 나가면 으레 되돌아오는 피드백은 '정말

이냐?', '진심인 것 같냐?'는 류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마치 '가까이서 보니 실재는 그렇지 않지?' 하고 묻는 투다.

햇수로 12년째 그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딱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 씨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져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누구도 들여다보거나 헤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용서는 은총

바람 끝이 매섭던 지난 2010년 2월 25일,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누구 못지않게 줄이는 가슴을 안고 판결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있었다.

유영철로 인해 원치 않게 세상에 드러난 고정원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고 씨는 숨죽인 탄식과 함께 얼굴을 떨어뜨렸다. 다시 고개를 든 그의 눈가는 빨갭게 상기되어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그때 그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또 한 번 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만난 고 씨는 물기가 묻어나는 눈으로 대뜸 이렇게 말했다. 뜻밖의 반응에 순간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현재의 선고 일정이 잡힌 이후 줄곧 가슴을 졸여왔다는 고 씨. 당시엔 이런 그의 반응이 의외였을 뿐 아니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제 가족이 한 날 한 시에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을 때도..., 그래서 지옥 같은 삶으로 추락했을 때도 누구 하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간절히 바랐던 바는 깡그리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은 무시해도 좋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가 얘기하는 대로 받아 적고 기사화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마음이 아니라 손이 기사를 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안겨준 '그 일'에 '용서'라는 말은 그렇게 쉽사리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됐다. 아니, 감히 '용서'란 말을 들먹일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 슬하게 자살을 시도했던 고 씨. 그런 고 씨에게 '용서'는 무엇이었을까?

"용서를 통해 한평생 몸의 한 부분처럼 지녀온 생각조차 변화될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오게 한 다리였던 것이다. 그 '다리'는 운명처럼 그에게 전해져 왔다.

"스스로는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용서', 그것은 제게 은총이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
슬하게 자살을
시도했던
고정원 루치아노.
그런 고 씨에게
'용서'는
무엇이었을까?



고정원 루치아노

그리스도인의 용서, 존재 그 자체

지난해 12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주교좌성당인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자비의 희년' 성문을 열어 "자비의 희년은 하느님 존재와 그분의 은유한 부성애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문을 여는 것은 기쁨에로의 초대이고 위대한 용서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힘주어 말한 '은총의 때' 자비의 희년은 용서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해 하느님께 씻을 수 없는 죄까지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버지는 언제나 연민과 자비로 끝까지 용서하는 존재다. 태초에 아담이 지은 잘못을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예수님 시대를 거치며 인류가 끔찍한 죄를 무수히 저질렀음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용서하실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다. 주님이신 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용서'에서 드러난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6, 48)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완전으로 향한 길도 가르쳐주신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속죄양으로 삼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신·구약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를 다양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한 역사와 가르침들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용서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야말로 하느님의 본질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느님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잠시 망각했던 자비의 개념을 일깨워주고 있다. 교황은 '하느님 자비' 실천을 우리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자비 실천이 교회 생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설교를 통해 자비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자격 조건임을 가르치셨다. 또 자비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드러난다고 하셨다.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징표는 무엇일까? 자비의 희년을 지내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구체적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용서의 열매 '화해'

"너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도' 중에 바치는 이 청원은 놀라운 것이다.

용서에 대해 알려주는 이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외적으로 이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산상설교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의 은총으로 열렸던 마음이 다시 닫히고 굳어져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들려준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

아울러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갈라 5,25) 성령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실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해준다. 즉, 용서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이라는 크나큰 은총을 체험했고 순간순간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용서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의 화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화해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용서로 인해 주님과 의 일치, 세상과의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화해는 용서가 맺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해의 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매정한 종의 비유'는 이런 말씀으로 끝맺는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마태 18,35)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원수까지 용서하기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스승 예수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이다.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랑이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이를 재현해 보여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바치는 기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실은 화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는 하나 됨, 곧 일치로 드러난다. 하느님께서서는 분열을 일삼는 이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들을 제단에서 돌려보내시면서,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라고 하신다.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은 당신 백성들 사이의 평화와 화목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백성의 일치다.

이 일치가 세속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께 우리 마음을 바칠 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은총을 베풀어주신다는 것을 들려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에 대한 유효하고 의심할 수 없는 표징을 교회가 집전하는 성사들 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또한 은총이다.

완고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러한 모습에 대해 용서를 청할 때 화해의 길이 열린다. 그 길은 하느님께로 향해 있다! **✠**

평신도 연구

평신도의 해외선교 참여 활성화

조중근 스테파노 한국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이 글은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가 개최한 제13회 평사연 포럼(2015. 11. 26)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난 1975년 해외선교를 위해 한국외방선교회를 설립한 한국 천주교회는 1981년 8월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4명의 사제를 파푸아뉴기니에 파견키로 결정하면서 해외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세계에 유례가 없이 평신도들에 의해 이 땅에 전파된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는 데는 수많은 평신도와 해외선교사가 흘린 순교의 피는 물론, 해외 천주교회의 많은 도움도 있었다. 이를 밑거름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인구의 10.6%인 556만 명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며, 가장 신뢰받는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평신도들이 선교활동에서 사제나 수도자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가 이룩한 내적 성숙과 사목과 선교에서 축적한 성과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천주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내적·외적으로 성장한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받던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의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아직 피선교국으로 분류되어 국내 복음화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천주교회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해외선교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세계만방에 선교사로 파견하셨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이후 문헌들은 평신도들의 역할과 책무 가운데 하나로 해외선교 참여를 강조해 왔다.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는, 평신도들이 선교활동에서 사제나 수도자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1957년 비오 12세 교황의 회칙 「신앙의 선물 *Fidei Donum*」은 평신도들이 사제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로서 자신들의 전공분야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투

신하며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에서도 평신도들이 해외선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해외선교에 평신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평신도들은 “진리의 협력자”(3, 요한 8)가 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4년 현재 한국 천주교회는 해외선교(해외교포사목 불포함)에 교구사제 90명, 수도회(신부, 수사, 수녀, 수련자) 808명을 파견하고 있다. 75개국에서 해외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고, 유럽, 남미, 아프리카, 북미, 오세아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신도 선교사 숫자는 공식통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60여명 정도로 추정됨), 이는 해외선교가 성사와 전례 중심의 천주교 신앙생활의 특성상 사제와 수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관련 문헌들의 가르침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신도 선교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공식통계에 집계된 평신도 해외선교 참여자 수는 남자 33명, 여자 225명 등 총 258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약 78%를 점하고 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1977년부터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2015년 11월까지 58명(이중 남자 6명)을 해외에 파견하였고, 평신도 선교사 양성 및 해외파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선교사 교육이 '해외선교사학교'와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평신도의 참여는 매우 낮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공의회 문헌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향후 평신도 해외선교사 파견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평신도들은 생활인이자 신앙인이라는 관점에서 해외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역 주민들과 더욱 친밀한 선교 활동이 가능하며, 사회활동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골롬반 외방 선교회 해외선교 파견 기념 사진(2014. 3. 29)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도래할 해외선교에서의 성소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평신도 해외선교 활성화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증대와 배려를 건의 드리면서 해외선교에 사제·수도자와 평신도 선교사를 팀을 이루어 파견,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에 평신도해외선교분과위원회 설립·운영, 평신도 선교사 네트워크 구축, 평신도 해외선교사 시상, 평신도 해외선교 사례집 발간, 평신도 해외선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신도 관련단체들의 관심과 역할 증대 등을 제언한다.

평신도 해외선교를 위해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친다면 평신도 해외선교사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계 보편교회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더욱 성숙한 한국 천주교회로 발달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이를 위해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불꽃이 향기가 되어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

유영훈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우리에게 금지인 이분들의 모범은 반대로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가톨릭 평신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가운데서도 격동의 20세기를 살면서 신앙의 모범이 된 대표적 평신도들의 삶과 신앙을 정리하여 알림으로써 오늘을 사는 평신도들에게 삶의 좌표를 제시하려는 취지로 시작한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사업은 한국평협의 회장(1996~2000년)을 역임한 류덕희 고문(모세, 1주1경동제약 대표이사)이 위의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후원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한국평협은 이 사업을 평화신문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평협의 기획위원장인 동시에 평화신문 편집국장이던 이창훈 형제를 중심으로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활동의 시작과 동시에 귀감이 되는 각계의 대표적인 20세기 평신도들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교계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 후보자는 총 32명이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널리 알려진 인물부터 아주 최근에 선종하신 인물까지 다양한 분들이 응모되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 선배들의 신앙 유산의 산물임을 실감케 했다.

이 사업은 최초 신앙의 귀감이 되는 20세기 평신도들을 발굴하여 알리는 것은 물론 전문 연구

자를 통해 해당 평신도의 신앙과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평화신문에 연재한 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연구의 진행과는 별도로 더 많은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편안하고 읽히기 쉬운 글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연구자를 공모하는 대신 이야기를 집필할 작가를 공모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학술적 접근보다는 대중적 접근을 통해 비신자 등 일반인에게도 알리는 것에 역점을 두기 위한 것이다.

한국평협은 우선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 32명 가운데 교육가이며 문필가 김익진 프란치스코 선생, 사도법관 김홍섭 바오로 판사, 독립운동가이며 교육가 최정숙 베아트리지체 선생, 대구대목구 설정의 공로자이며 국채보상운동의 선구자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선생, 정치가이며 교육가 장면 선생 등 다섯 명을 1차 년도 진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작가를 공개 모집했다. 작가를 선정하는 데는 집필 제안서와 시안, 작가의 경력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각 김문태 교수, 권은정 선생, 이미애 선생, 윤지강 선생, 최홍운 선생이 결정되었다. 작가들은 선정된 다섯 명의 평신도가 가톨릭의 모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평화신문에 각 10회분의

분량으로 나누어 지난 2014년 평신도주일인 11월 16일부터 평화신문에 약 1년 동안 연재했다.

2015년 평신도주일부터는 이 사업의 2차 년도 선정인물 다섯 명의 이야기가 연재되고 있다. 2차 년도 선정인물은 공산주의자에서 하느님께 돌아온 평신도 신학자 양한모 아우구스티노 선생, 순교자 연구에 일생을 바친 한국천주교회사가 김구정 이나시오, 가톨릭 의료 사업에 헌신한 의사 박병래 요셉, 삶을 노래한 구도 시인 구상 세례자 요한, 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산파 김금룡 가이오 등이며 이 다섯 분의 이야기를 집필할 작가는 각각 이석규 선생, 김정숙 교수, 맹광호 교수, 배봉한 선생, 박명진 선생이다.

첫 해 연재된 이야기는 다시 엮어져 책으로 출판됐는데 책 제목은 <불꽃이 향기가 되어>로 정해져 지난 3월 15일 저녁 명동성당 프란치스코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염수정 추기경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각 교구 주교들과 평협임원, 선정된 인물의 유족과 집필 작가, 평신도 사도직 단체장 등 약 100명의 축하객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염 추기경은 인사말씀에서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책의 제목처럼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었고, 그 사랑은 이웃들로 향해 뿜어진 사랑의 향기가 되었다."며

"우리에게 금지인 이분들의 모범은 반대로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이며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둔 후배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자고 치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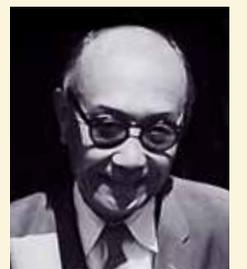
<불꽃이 향기가 되어>는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과 가톨릭출판사 직영매장은 물론 일반 인터넷서점을 통해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선정 인물 약전>

김익진 프란치스코(1906~1970)

교육가, 사상가, 문필가. 목포 출신으로 서울중앙고보, 일본 와세다대학과 중국 북경대학에서 공부한 수재. 한때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했으나 오기선 신부의 권유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감화를 받아 1936년 입교한 후 신앙인의 삶을 걸었다. 왜관 순심중학교 교장, 김천 성의중학교 교감을 지냈고, 가톨릭시보(현 가톨릭신문)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1955년부터는 문필 생활에 전념해 많은 기고문과 번역서를 남겼다.





김흥섭 바오로(1951~1965)

법관이자 가톨릭 사상가. 변호사와 검사를 거쳐 판사로 대법관 직무대리까지 지낸 그는 언제나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바른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수 있는가?'를 화두로 삼고 청렴한 생활과 양심적 재판으로 '사도 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1953년 가톨릭으로 개종한 그는 많은 법조인들을 천주교 신앙으로 인도했으며 그의 활동은 가톨릭법조인회의 초석이 됐다.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현대 한국의 법조사·종교사·지성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정숙 베아트리체(1902~1977)

제주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제주시 삼도리에서 출생해 신성여학교(오늘날 신성여중고)를 1회로 졸업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다니면서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민족차별의 심각성을 체험한 후 1919년 3·1운동에 가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원을 열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진료와 함께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이후 자신이 졸업한 신성여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을 지내면서 평생을 교육에 몸 바쳤다.



서상돈 아우구스티노(1850~1913)

대구대목구(교구) 초기의 대표적 평신도. 1866년 병인박해 때 집안에서 삼촌 3명이 순교한 구교우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순교 신심이 남달랐다. 보부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조선교구가 분할될 때 대구대목구가 설정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들어온 차관을 갚을 길이 없어지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일생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던 때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장면 요한(1899~1966)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지낸 정치가이자 교육가, 문필가. 미국 유학 후인 1931년부터 동성상업학교(현 동성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가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공화국 국무총리와 부통령,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실각하는 비운을 겪었다.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으로서 깊은 신심을 지녔을 뿐 아니라 교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휴식

전주교구 시기동본당 신성공소

촬영·정리
김규현 바오로 서울대학교 가톨릭사건가회 회원



신성공소는 1903년 설립된 신성리본당의 전신으로 순교자들의 가족들이 지은 공소이다.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피난을 와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1893년에 공소가 생겼다.

교우들은 신성리 산허리에 화전을 일구어 담배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곳은 황석두 루카(1813-1866년)와 함께 치명한 다블뤼 주교, 위앵 신부, 오메트르 신부, 장주기 요셉, 다섯 성인의 순교 사실을 교회에 증언한 황 마르타가 살던 마을이다.

지금 공소 강당으로 쓰는 한옥 건물은 1903년 본당이 설립되면서 1909년에 사제관으로 세운 것이다. 1936년 시기동성당으로 본당이 옮겨지면서 8칸의 성당 건물은 매각되어 없어지고, 남은 사제관을 고쳐서 공소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초창기 한옥 형태의 건축으로 종교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80호로 지정되었다. 

-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신성길 176-17
- 본당: 시기동본당
- 전화: 063. 538. 0091(시기동)

신앙 체험 수기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대현 요나 서울대학교 문정동본당

이 글은 2016년 '평화신문'에서 공모한 제3회 신앙체험 수기 대상작이다. - 편집자 주
(평화신문 2016. 2. 28., 1353호)



그림/ 문채현

나에게는 눈물이 기도였다

“나, 어떻게 해.”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의 첫마디였다. 일주일 전, 가슴 수술 후 의사가 “악성 종양이었다.”라고 말해주었을 때와는 달랐다. 조직 검사 결과 수술한 주변이 깨끗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아내는 ‘작은 혹’ 하나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겨드랑이의 림프 조직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또 한 번 수술을 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졌다. 아내의 암은 조금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수술 전부터 끔찍이도 싫어했던 머리가 모두 빠지는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절망과 구원이 뒤섞인 아내의 말에 나는 어떤 답도 줄 수 없었다. 감감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암에 걸리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심지어 아내 자신조차도. 가족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체구인 아내의 생활이 무절제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만큼 충격은 컸고, 아무런 면역도 없었다. 그래서 의사의 “큰 걱정 말라.”는 장담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내도 ‘죽음’부터 떠올렸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며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율이 80% 이상이니 걱정 말라는 의사의 위로가 공허했다. 나 역시 그 한마디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2014년 3월, 신다섯의 나와 신한 살의 아내는 이렇게 새로운 삶 앞에 섰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말을 잃었다. 기도에만 매달렸다. 아내의 기도는 늘 눈물과 함께였다. 한참을 아무런 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 보면 아내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는 울고 있었다. 평소에도 아내는 시간만 나면 기도를 했고, 기도하다 잠들면 가장 행복하다는 아내였다. 그런 아내에게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함께 기도한 적도 없었다.

그즈음 나는 냉담자나 다름없었다.

그나마 언론사에 근무할 때 교우회를 만들고, 가끔 참석했던 가톨릭언론인협회의 월례미사조차 공직으로 자리를 옮긴 10개월 전부터는 발을 끊었다. 이상하리만치 기도도 못 했다.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도가 되지를 않았다. 명색이 글쟁이 출신이고, 언변도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기도만 하면 아예 말이나 문장이 안 되고 금방 막혀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생의 권유에 따라 기도문을 종이에 미리 써서 읽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울림이 없이 겉으로 뻔뻔기만 했다.

기도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었다. 신부님은 말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슬픈 일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기도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간절해야 나오니까.”라고. 그것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아픈 아내와 함께 성당을 찾았다. 기도보다는 주님께 따지고 싶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내는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따른 것밖에 없는데, 기껏 주시는 것이 이겁니까.” 그러나 성당에 들어서서 순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무너졌다. 눈물부터 쏟아졌다. 아무런 말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냥 소리 내어 울었고 주님께 “저의 이 눈물로 아내의 아픈 곳을 씻어 줄 수 있다면 강물만큼이라도 흘리겠다.”고 말했다.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기도가 눈물임을. 그 눈물로 주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침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기척’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헛된 희망이었다. 아들의 군 제대 날짜에 맞춰 아내는 3주 간격으로 6차례 항암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나와 아내는 서로 다른 고통으로 신음했다. 몸이 약한 아내는 독한 주사를 견뎌내지 못해 버둥거렸고 휘청거렸다. 거동조차 불편한 시골에 계신 팔순 노모와 장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난 그 모든 뒷감당을 해야 했다. 입원 때는 밤새 병실에서 지내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퇴원 후 부랴부랴 퇴근해 장을 봐서 아내를 위해 전혀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고 집안 정리를 하면 자정이 가까워지는 날들이 계속됐다.

나는 아내의 변덕에 지쳐갔고, 그렇게 효과도 없을 것 같았던 아들은 짓눌린 집안 공기에 일주일일 못 버티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아내와 산책조차 같이 하지 않으려는 아들이 야속하고 꽤 씹해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장모에게, 나는 어머니에게 고통을 하소연하는 장면을 몰끄러미 바라보는 아들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나도 아내도 이렇게 힘들 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엄마가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아프니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3차 항암 주사로 머리가 모두 빠진 날, 아내는 모자를 눌러쓴 채 울었다. 가발까지 미리 준비했지만 쓰지 않고 나를 보자 고개를 돌려버렸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맞고 나서 아내는 목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는 휴대폰으로 성가와 신부님의 강론을 줄곧 들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잠을 조금이라도 잘 수 있다고 했다. 아내는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니 아프지 않게 주님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 건강을 되찾기보다는 생을 포기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했다. 늦은 나이에도 밤낮으로 악착같이 매달려 암을 키운 초고까지 완성한 박사 논문을 던져버렸고, 대학의 연구원 자리도 내놓았고, 장롱 속의 옷들을 버렸고, 친구들의 방문안도 거절했다.

그런 아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내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었고, 아내의 고통을 보며 나는 그로 인해 닥칠 나의 현실적 고통

에 신음하였다. 그 아픔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 누구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절망과 불안,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보, 울지 마. 내가 있잖아.”였다.

그래, 내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허망한 줄 알지만 이 말밖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김훈의 소설 「화장」의 주인공인 오 상무처럼 나 역시 한편으로는 아내의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무력감과 죄책감, 다른 한편에는 아내로 인해 받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사이를 오갔다. 그런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 신부님의 말이 생각났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하라.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든 상관없다.”고. 어쩌면 그것만이 나와 아내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몰랐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복음성가 538)라고 노래했다. 물론 나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 아내의 기도와 만날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16년 만의 약속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때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란 것을 깨달았다. 10년 전에도 그랬다. 2006년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실의 시대」에서 말한 것처럼 가치관이 뒤집히고 또 뒤집혔고,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고, 깨끗함이 더러움이 되고 더러움이 깨끗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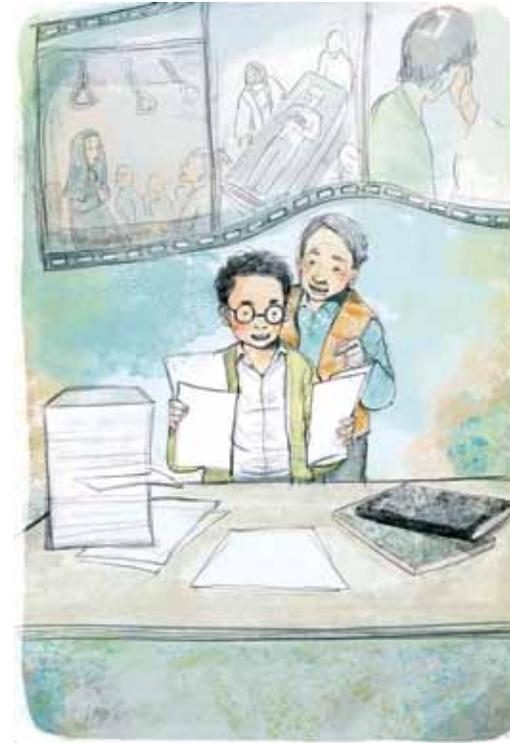
아침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후배가 저녁에 몰래 다가와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아픔과 억

울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우성도 쳐보고, 몸부림도 쳐보았지만 그놈의 분노와 고통과 억울함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나의 말을 온전히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절대고독 속에서 절대자이신 주님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니는 성당의 대성전 앞 벽에는 커다란 성작이 그려져 있다. 처음으로 그곳을 찾은 날, 그 성작이 빈 쓰레기통으로 보였다. “나의 분노와 고통과 미움을 모두 그 안에 버리자.”고 다짐했다. 버리고 오면 또 어느새 슬그머니 차고, 그러면 또 버리고를 반복하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무엇보다 영성체를 하고 싶었다. 나의 대부(代父)인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갔을 때 성체가 너무나 먹고 싶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미움과 분노와 고통과 좌절과 불신을 버리지 않고는 성체를 모시지 못할 것 같았다. 성체가 내 몸 안의 그것들을 모든 녹여 버릴 것만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첫 영성체는 뜨거웠다. 입이 화끈거렸고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세상 어떤 술과 음식으로도 느낄 수 없는 짜릿함과 황홀한 도취였다. 최인호 선생님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 어머니의 젖을 빨 때의 느낌’ ‘날카로운 첫 키스 같은 것’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성모 마리아 승천일인 2006년 8월 15일, 나는 주님의 자식이 되었다. 16년 만이었다. 1990년 가을,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서울 혜화동성당에서 아내(마카엘라)와 혼인을 할 때 신부님은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나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자신했다. 사후세계도, 부활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담은 기복신앙인 불교가 좋았다. 굳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고집한 것은 멋있어



그림/ 문채현

보여서였다. 그래서 아내가 성당 가자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하는 것조차 싫어 도망치곤 했다. 주님은 그런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약속을 지킬 것을 알고 말없이 빈 잔을 준비해 놓고 긴 세월을 기다려 주셨다.

이름이란 참으로 묘하다. ‘그렇게 되리라’는 운명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같기도 하다. 최인호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인 ‘베드로’를 물려주려 했지만, 나는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가 되고 싶었다. 그의 소설 「별들의 고향」의 주인공인 경아의 ‘요나 콤플렉스’를 떠올려서도, 어머니 뱃속의 평화로움이 그리워서도 아니었다. 투덜이 요나와 너무나 닮은 나의 ‘운명’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신(주님)께서 구렁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요나 2,7-8).

그것이 주님의 축복인지도 몰랐다

기다림이 길면, 만남의 기쁨 또한 그만큼 큰가보다. 16년을 기다려 나를 품에 안은 주님이 그랬다.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었다. 세례 받은 지 두 달도 안 돼 나를 문정동성당 김홍진 주임신부님은 ‘성당 20년사’ 편찬위원으로 임명했다. 내가 글쟁이이고, 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친편일률적인 역사책이 싫어서였다. 글쓰기의 업(業)을 가진 자의 또 다른 글쓰기.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성당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교우들 힘으로 20년을 정리하자고 말은 꺼내 놓고, 누구도 엄두를 못내 시간만 갔지만 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신부님과 다른 편찬위원들이 회의 때마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자신의 재능을 주님의 역사에 쓰는 일이 얼마나 영광인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귀찮고 막막했다. 아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사업을 귀하지 않다(귀찮다)니.” 하고 겁을 쥐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갔다. 답답한 분위기를 끝내 참지 못해 “편집장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후회했다. 주말, 휴일, 심지어 휴가까지 쏟아부어도 ‘역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신앙심은 너무나 얕았고,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으며, 도움보다는 주위의 간섭이 많았다. 봉사 의욕만 앞세우고, 글쓰기 경험을 위해 처음 의욕을 보였던 몇몇 젊은이들도 여름 한 철赫赫대다 떠나고, 설상가상 기획을 돕던 교우가 갑자기 닥친 병(病)으로 손을 놓자 어두운 터널 속에 멈춰 선 것처럼 캄캄했다.

“그래, 이걸 나의 일이 아니야.”라고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아무리 혼자 발버둥 치고, 쓰고 또 써도 어둠의 터널 끝은 보이지 않았다. 하루에도 열두 번 도망칠 궁리만 했다. 그러나 주님의 세상 아래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요나처럼 투덜댔다. 대성전에 걸린 커다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노려보며 항의했다. “무슨 사건이라도 생겨 때려치우게 만들든지, 아니면 좀 도와주시든지.”

어느 날 축복과도 같이 한 교우가 찾아왔고, 그의 발 빠른 편집으로 20년사는 큰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2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성당을 거쳐 간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교우들의 가슴에 살아 있는 기억들을 만나면서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순간, 아득했던 터널의 끝의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성당 20년사’를 쓰면서 굳어 버린 기억과 자료, 그것들을 어설피게 정리한 글이 역사가 아님을 알았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은 각자의 가슴과 삶에 있었다. 어느 수녀님은 지하철에서 만난 지체 장애 청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어느 신부님은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병자 영성체를 주던 뇌성마비 청년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성당을 주검이 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던 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역사이고, 성전의 역사임을 ‘20년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었으랴. 주님은 그렇게 내가 당신께 걸어오리란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20년사’ 쓰기는 햇병아리 신자에게 더 없는 축복이었고, 16년이나 기다리면서 준비한 주님의 더없는 사랑의 선물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자만했고,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했다. “20년사를 내가 만들었는데.” 하며 뽐냈고, 책 만들면서 수백 번 성당을 찾았으니 당분간 안 가도 된다면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풍랑을 만나 바닷물에 던져지고 나서야 뉘우치는 어리석은 당신의 아들이 다시 될 줄은. 얼이 아득해져,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올 줄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항암 주사에 이은 방사선 치료로 아내의 병도 끝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줄 난 알았다. 아내도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안간힘으로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견뎠다. “끝났다.”는 흥가분함에 아내와 나는 베트남으로 여행까지 갔다 왔다. 그런데 아니었다. 방사선 치료는 남아 있는 아내의 한 줄기 힘마저 앗아갔다. 방사선이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죽이는 동안, 아내의 생명도 죽어갔다. 호흡조차 제대로 못 하게 된 아내는 가슴을 치며 억억 울었고, 몸이 사그라져 갔다. 게다가 항호르몬제를 매일 먹으면서 온몸이 저리는 통증과 불면을 호소하며 울었다. 적어도 아내 혼자 자기 몸 돌보는 것은 가능할 줄 알았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질 거야.”란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 김계 변한 얼굴로 “차라리 재발되더라도 그만 두겠다.”는 아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난 알 수가 없었다. 예상보다 아내를 일찍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절망이 다시 엄습했다.

아내의 기도도 삶보다 죽음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었다. 스트레스로 몸무게 7kg이나 줄면서 나도 무너져가고 있었다. 아내는 포기하듯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지만 혈변이 나와 한 달 만에 나왔다. 무슨 수를 쓰든 멈춰야 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항암 치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아예 다르게 살자. 생활 패턴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었다. 아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아내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내는 6개월 전부터는 아예 항암 약까지 끊어 버렸다. 아내에게 말했다. “주님께 난 살아야 한다고. 그럴 이유가 있다고. 내가 아프면 남편과 아들이 아프고, 내가 죽으면 남편이 죽고, 남편까지 죽으면 내 아들도 죽는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한다고 기도해라. 나도 그렇게 할 테니.” 마침내 아내와 나의 기도는 하나가 되었다.

아내도 주님이 이런 병을 주신 데에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라면서 면역력 회복을 위해 열흘씩 암환자 면역력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주의 ‘성모꽃마을’을 찾았다. 처음 그곳에 데려다 주고 오는 날, 나는 마치 아내를 버리고 오는 것 같은 죄책감에 가슴이 아파 한참을 차 안에 그냥 앉아 있었다. 나의 이런 불안을 날려버리기도 하듯 아내는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곳을 찾아 나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외조의 힘’을 들려줘 박수를 받곤 한다. 이렇게 처음 서로 아득한 거리에 있던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고, 아내의 삶이 내 삶이 되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제는 그 아픔이 두렵거나 힘들지 않다. 이렇게 신앙의 일치, 성가정의 일치야말로 아내의 병을 통해 주님이 주려고 한 선물이 아닐까.

아내는 아직도 아프다. 매일 게르마늄 의자에 앉아 영덩이를 찌고, 족욕기에 발을 담가 체온을 높이고 있다. 폐에 자그마한 병변도 있다. 그러나 나와 아내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더 이상 영혼을 잠식당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아내 미카엘라를 지키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라고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리만치 편안하다. 아내 역시 나의 이 기도 덕분에 몸이 한결 좋아진다고 말한다. 이제는 나도 기도할 줄 안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

작은 소망 하나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례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내는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고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아내와 반평생 살면서, 명색이 경상도 남자가 아내를 위해 집안 청소, 빨래, 심지어 밥과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고 있지만 빈말이라도 이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의 내 나이가 대부분 그렇듯, 위태위태한 직장 생활로 언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데도 아내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 “바람은 불고 싶은 데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병이 그렇듯, 거기에는 분명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준다. 과거에는 그런 아내를 비웃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소중하다.

작은 소망이 있다. 고향인 경북 예천 읍내에 작은 동산에 나무로 지은 작은 성당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끝내 가보지 못했던 곳. 지금은 화재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여전히 소박하고 자그마한 새 성당이 지어졌다. 2, 3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 손잡고 주일마다 그곳을 찾고 싶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려 주고, ‘신앙의 신비’를 느끼게 해주는 봉사도 하고 싶다. 그때가 언제일지 역시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나는 그날을 위해 하루빨리 아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제 아내 미카엘라의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미카엘라의 삶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성모꽃마을의 ‘치유의 기도’). 

인문학 강좌

순교영성과 천주가사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천주가사(호남교회사연구소, 울산대국박물관)

글을 몰라 천주가사를 외우며 천주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였던 신앙선조들의 삶을 되새기자.

“천주학쟁이들을 모조리 결박하라!”

순식간에 포도군사들이 안방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이트 포도군사가 방 가운데 놓인 상을 발로 걷어찼다. 상이 허공에 뿔뿔이 부서져 떨어지고 와지끈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 위에 놓였던 등잔과 나무로 만든 십자가상이 벽에 부딪쳐 튕겨져 나갔다.

뒤따른 포도군사들이 육모방망이로 중년 사내들을 인정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비명과 신음 소리가 뒤엉켰다.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방바닥은 금세 피로 흥건해졌다. 평온한 성전이 한 순간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피범벅이 된 중년 사내들이 붉은 오랏줄에 묶여 마당으로 끌려나왔다. 부녀자들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북풍에 사시나무 떨듯 했다.

(중략)

포도군관이 중년 사내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은 군주도 아버지도 모르는 사악한 난신적자들이다. 또한 타국의 세력을 끌어들이 조정을 뒤집어엎으려 획책한 역적들이다. 대역죄인인 너희들은 한양 포도청으로 압송될 것이다. 할 말이 있는가?”

최인호 야고보가 고개를 들었다. 오른쪽 눈이 부어 왼쪽 눈으로만 앞을 볼 수 있었다. 상투마저 풀어져 긴 머리가 피범벅이 된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다.

“우리가 왜 난신적자란 말이오? 천주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어찌 임금 중의 임금이 아니라 할 수 있소? 또한 천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으니 어찌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오? 그런 분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공경하는 게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포도군관이 발을 굴렀다.

“저런 괘씸한…….”

최인호가 급히 말을 이었다.

“또한 우리가 역적이라는 말도 틀렸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친애하며 평온하게 살길 원하오. 그게 왜 나라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이란 말이오? 나라님은 백성들이 복되게 살길 바라지 않는단 말이오?”

- 김문태의 <세 신학생 이야기> 중에서(바오로딸, 2012)

병인박해가 일어난 지 150주년이 되었다. 한국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중국 베이징의 베이탕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전교함으로써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의 손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1790년에 북경에 있던 구베아 주교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조상제사금지령을 내림으로써 당시의 지도이념이었던 유교와 크게 부딪치게 되었다. 유교식 제사가 우상숭배의 소지가 있다는 교황청의 결정에 따른 일이었다. 결국 1791년에 천주교 신자인 전라도의 선비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한 뒤 사촌 권상연과 더불어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소위 신해진산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이 폐제분주 사건으로 인해 천주교인들은 유학자들로부터 아버지도 없고 군주도 없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난적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조선말 천주교와 유교의 만남은 종교·사상의 이질성에 따른 문화적 충격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천주교는 백여 년간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 1839년의 기해박해, 1846년의 병오박해, 1866년의 병인박해 등의 4대 박해를 거치며 만여 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였던 것이다.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난 조상을 살아있을 때처럼 모시고자 하는 제사를 오해함으로써 이 땅의 전통적인 풍습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셈이었다. 반면 유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추원보본의 의례를 부인한 천주교를 서양의 사악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척결한 셈이었다. 하나의 종교·사상이 다른 종교·사상을 만나 서로 절충하고자 하는 습합(習合)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야기된 비극이었다. 자신의 이념으로써 상대를 누르고자 하는 압승(壓勝) 형태를 띠었던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1794년 조선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드린 주문모 신부는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지자 의금부에 자수하여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았다. 그 뒤 1836년에 입국한 파리외방전교회의 모방 신부 역시 1839년 기해박해 때 앙베르 주교와 샤스탕 신부와 함께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첫 방인사제였던 김대건 신부는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1846년에 체포되어 역시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최양업 신부가 1849년에 귀국하여 11년간이나 숨어 다니며 사목하였다. 앞서 순교한 김대건 신부를 제외하고 박해시기에 사목 활동한 유일한 방인사제였다.

최양업 신부는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노래를 통해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한 토착화된 교리교육을 계획하였다. 그는 교화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말과 글로 천주교 교리를 읊은 일련의 천주가사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 땅의 민중에게 널리 알려진 익숙한 시가 장르인 가사에 우리의 말과 글로 된 천주교 교리를 실어 신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교회의 가르침과 신자의 도리에 눈뜰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최양업 신부는 우리의 말과 글로 천주교 교리를 읊은 일련의 천주가사를 높이 평가하였다

현세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풍진세계로서 눈물의 골짜기이자 귀양살이하는 곳이므로 현세의 즐거움을 탐할 것이 아니라, 사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천주가는 오늘날 200여 편 남짓 전해오고 있다. 특히 천주교 박해시기에 창작된 천주가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이 시기의 천주가사에는 외부의 압박에 대응하여 비신자들에 대한 선교를 염두에 두는 한편,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자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천주교의 가르침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말교리(四未敎理)와 관련한 천주가사는 순교영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죽음, 심판, 천당, 지옥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마지막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하고, 현세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사말교리는 신앙선조들이 용감하게 순교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과 더불어 천주교의 사대교리 중의 하나인 상선벌악을 기반으로 하여 작품화한 것이 바로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천당강론>, <지옥강론>이다.

이 천주가사들은 현세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풍진세계로서 눈물의 골짜기이자 귀양살이하는 곳이므로 현세의 즐거움을 탐할 것이 아니라, 사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 도리를 몰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세속사람들과 달리, 고향인 천당의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며 신자답게 살아야 천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지복직관(至福直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서의 다양한 가르침 중에서 현세보다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무게 중심을 둬으로써 자연스럽게 당시의 순교영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게 되었다. 비록 글을 모르는 이들까지도 천주가사를 암송함으로써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고, 온갖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모진 수난을 당하고 치명하면서 천주를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설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다졌다. 그들의 굳은 믿음과 결연한 의지가 한국 천주교회를 자발적으로 세우고 키웠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2014년 말 현재 인구의 10.8%인 5,560,971명이고, 성인의 수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03위이며, 복자의 수가 124위나 된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비해 오늘날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는 20.7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만 나서면 성당이 있고, 손만 뻗으면 사제를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절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글을 몰라 천주가사를 외우며 천주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였던 신앙선조들의 삶, 그 가르침에 따라 목숨도 초개처럼 버렸던 순교자들의 삶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8천 명이 넘는 순교자를 낸 병인박해 150주년이니 더욱 그러하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거룩한 빈자를 찾아서5

황인수 이나시오 성바오로수도회 수사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을 카피하면 언젠가 그 사랑이 '인정하는 또 다른 사랑'이 된다.



사랑을 카피하다_ 아레초

라 베르나로 가려고 아시시에서 9시 39분 기차를 탔다. 길은 좀 복잡하다. 아레초 Arezzo에 가서 비비에나 Bibbena행 기차로 갈아타야 한다. 그리고 비비에나에서 라 베르나 La verna 산 위까지는 버스로 가는 길이다.

아레초는 처음이다. 그것도 차를 갈아타느라 기차역에 잠시 머무는 정도지만. 로마로 오는 비행기에서 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 무대가 여기 아레초였던 것 같다. 주연 배우들도, 이야기도 참 매력적인 영화였다. 영화는 원본과 복제본이라는 이야기로 막을 여는데 원 제목도 '인중 받은 복제품'(Copie conforme)이다. 원본과 구분할 수 없는 카피본이라 할까. 영화는 이탈리아 중부에서 프랑스 여인(줄리엣 비노쉬)과 영국 작가(윌리엄

슈벨)가 만나 짧은 여행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주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오해하자 둘은 아예 부부인 것처럼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부부였는지 그냥 부부 역할극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 이렇게 진짜와 모조라는 주제가 절묘하게 변주된다. 한국에서 개봉될 때 이 영화의 제목은 '사랑을 카피하다'였다. 사랑을 카피할 수 있을까? 카피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몸에 받은 곳, 라베르나를 향해 가는 참이다.

아레초는 프란치스코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이 도시가 라베르나로 가는 길목에 있어 성인은 가끔 여기를 들르셨던 모양. 한번은 여기 왔다가 "밤낮으로 떠드는 소리와 울부짖음을"(페루지아 전기, 81) 듣게 된다. 사람들을 충동하여 이 도시를 파탄시키려는 마귀의 장난임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실베스테르 형제를 불러 명령한다. 성문 앞에 가서 마귀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단순성을 지닌 그 형제는 서둘러 명을 받들어 이행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주님 앞에 송가를 부르며 문앞에서 크게 소리질렀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대신하여, 또 우리 사부 프란치

스코의 명으로 이르노니, 악마들아! 모두들 여기서 썩 물러가거라!”(토마스 켈라노, 제2생애, 108)

어떻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두 파로 갈리어 서로 증오하며 싸우던 이 도시에 평화가 돌아왔고 사람들은 화목하게 살게 되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성당에는 이 장면을 그린 지오토의 프레스코화가 있다. 그림 속에는 아레초의 성문 앞에서 한 손으로 수도복 자락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도시 위로 손을 펴들고 외치는 실베스테르 형제가 서 있고 그 뒤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가 있다. 도시의 하늘에는 짐승의 모습을 한 마귀들이 쫓겨나가며 비명을 지른다.

실베스테르 형제의 모습이 정겹다. 사부의 명을 이행하려고 걸리적거리는 수도복 자락을 움켜잡고 성문 앞까지 서둘러 가는 한 단순한 사람. 그의 마음은 갈림이 없었으므로 마귀들은 도무지 그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마귀라는 말 ‘디아블로’가 실은 ‘갈리게 한다. 나눈다.’는 뜻이라 하지 않는가. 마귀들은 분열시키고 싸움을 벌이지만 하느님은 일치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 단순한 제자는, 그렇지만 전사(前史)가 있는 몸이다.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고 하지 않는가. 프란치스코가 회심하여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할 돌을 구할 때 실베스테르는 아시시에 살던 사제였는데 성인에게 돌을 팔았던 모양이다. 쿤타발레의 베르나르도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돈 욕심이 난 실베스테르는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지불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 돌 값을 더 쳐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성인은 그의 탐욕을 보고 돈을 계산도 하지 않고 잡히는 대로 쥐어 주었다. 실베스테르는 흠족해서 집에 돌아왔지만 프란치스코의 모습과 제 모습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회심하게 된다. 하느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리었던 그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다.



“그 사제는 더 지체해서 이익될 것이 없다 싶어 훌훌 털어버리고 세속을 떠나 하느님의 사람을 따라 완벽한 모방자가 되었다.”
(토마스 켈라노, 제2생애, 109)

돈에 욕심이 나서 프란치스코를 괴롭히던 사람이 뒤우치고 ‘하느님의 사람을 따라 완벽한 모방자’가 된다. 그렇게 프란치스코를 모방하여 실베스테르는 성인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놀랄 정도로 단순하며 순수한 사제였고 굳은 믿음으로 보아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성인(프란치스코)께서 성인으로 받들던 사람”(페루지아 전기, 81)이었다.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을 카피하면 언젠가 그 사랑이 ‘인정하는 또 다른 사랑’(Copie conforme)이 된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오상을 받았고 실베스테르는 프란치스코에게 성인으로 여겨졌다.

매일 원본을 바라보면서, 매일 사랑을 카피하면서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지. 마치 작은 풀이 매일 하늘을 우러르며 자라다가 가난한 제 몸이 하늘을 품게 되는 것처럼….

잠들기 싫은 밤_라 베르나 1

비비에나에 와서 버스를 탔다. 비비에나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버스 기사가 좀 딱딱해 보여서 함께 탄 할머니 수녀님에게 라 베르나 La verna에 대해 물었다. 초행길에서는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내릴 곳을 지나치기 십상이다. 혼자도 아니고 이 곳 사정도 모르니 미리 준비를 해둘 요량이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갑자기 위축이 되었다. 그러다 수녀님이 내리시기에 ‘아, 수녀님이 내리는 곳이면 라 베르나겠지.’ 하고는 따라 내렸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다. 성지까지는 한참 더 가야 하는데… 난감하다.

알고 보니 수녀님은 좋은 분이셨고 연로하신 분이라 내가 뒤에서 말하는 걸 못 들으셨던 거였다. 라 베르나 성지 아래쪽에 있는 수녀원에 사진한다. 하릴없이 피약별 아래 무거운 배낭을 메고 터벅터벅 아스팔트길을 올라간다. 두려움이 많고 내성적인 나, 당황하면 혼자 고민하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버리는 내 모습을 여기서 다시 만난다. 나야 할 수 없지만 나 때문에 맘을 흘리며 고생하는 나무 수사는 어쩔담.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보지만 다들 그냥 땡땡 지나간다.

여행길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면 이 길을 얼마나 더 걸어야 편안해질까 싶기도 하다. 사실 그래서 이 길을 떠난 거지.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이도 출발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을 테니까.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그분을 만났을 테니까. 그분은 평화라고도, 자유라고도, 완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이니까.

큰 너도밤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길을 따라 들어가니 성지 입구가 나온다. 라 베르나는 1224년, 성 프란치스코가 죽기 2년 전에 오상(五傷)을 받은 곳이다. 성인이 주님으로부터 회칙을 받

았다고 해서 폰테 콜롬보를 프란치스코인들의 시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곳을 프란치스코인들의 갈바리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인이 오상을 받은 것을 예수님의 수난에 비기는 것이다.

성인의 탄생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어서, 피카부인이 프란치스코를 낳을 때 난산이었는데 마구간에 가서 낳으라고 해 그렇게 했더니 성인이 태어났다고 한다. 프란치스코를 ‘제2의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은 불경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을 닮아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4,19)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지는 산 정상 조금 아래 해발 1,128미터 높이에 있다. 이곳은 오를란도 백작이 1213년 5월



에 성인에게 선물했는데, 프란치스코가 이곳에 처음 온 때는 그 이듬해인 1214년이고, 1218년에는 성인의 뜻에 따라 여기에 포르지웅콜라와 같은 크기로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경당이 세워진다. 지금은 수도원을 비롯해서 순례자 숙소, 청년들을 위한 집, 피정집 등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오상 경당에 들러 함께 기도하고, 사진 찍느라 고생하는 나무 수사님에게도 여기저기 마음 쓰며 돌아다니는 나에게도 오랜만에 휴가를 주기로 했다. 오상 경당 아래 바위를 파서 만들어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경당에 가서 오후 내내 머물렀다.



당신 안에 온 땅과
천사들 무리 기뻐 떠나니.
주님의 거룩한 성전,
동정녀들의 영광,
당신은 하늘나라 정원에 핀
지극히 부드러운 꽃.

.....

하늘에는 고운 반달, 저 아래 땅은 은은한 달빛에 잠겨 있다. 옆에 있는 청년들 멧이서 알지 못할 노래를 부른다. 프랑스에서 온 이들인가보다. 다섯 명의 여학생이 프랑스어로 부르는 성가가 참 아름답다. 마치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처럼 아름다운 세상. 시골 외갓집에 온 기분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이 기막힌 보너스를 즐긴다. 잠들기 싫은 이 밤, 정지용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이유는 저 세상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저마다 눈감기 싫은 밤이 있다.”
(‘별 2’에서).

그래요. 이유는 저 세상에 있지요. 하느님이 주신 평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지금 이 땅에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수도원 성당에서 수사님들과 끝기도를 바친 뒤 성당 앞 광장에 나와 바람을 쐬었다. 턱수염이 손 코네리처럼 멋진 수사님 한 분이 눈인사를 하신다. 안드레아 신부님. 밀라노 출신인 신부님은 올해 서품 50주년이 되었단다. 피렌체에서 첫 미사를 드리셨고 2000년부터 여기 라 베르나에서 살고 계신다고. ‘신부님께 비하면 저는 막 걸음마를 시작한 셈이네요.’ 웃으면서 벌써 어둠이 사뭇 내려온 세상을 둘러본다. 킁킁한 밤, 수도원 성당의 회랑에는 우윳빛 전등이 은성하고 성당 안에서는 ‘온유하신 동정녀여, 하례하나이다’(Salve, dolce vergine)를 부르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오, 온유하신 동정녀,
오, 온유하신 어머니,
하례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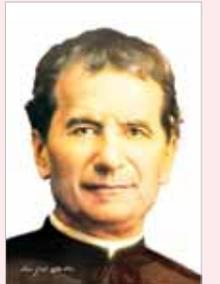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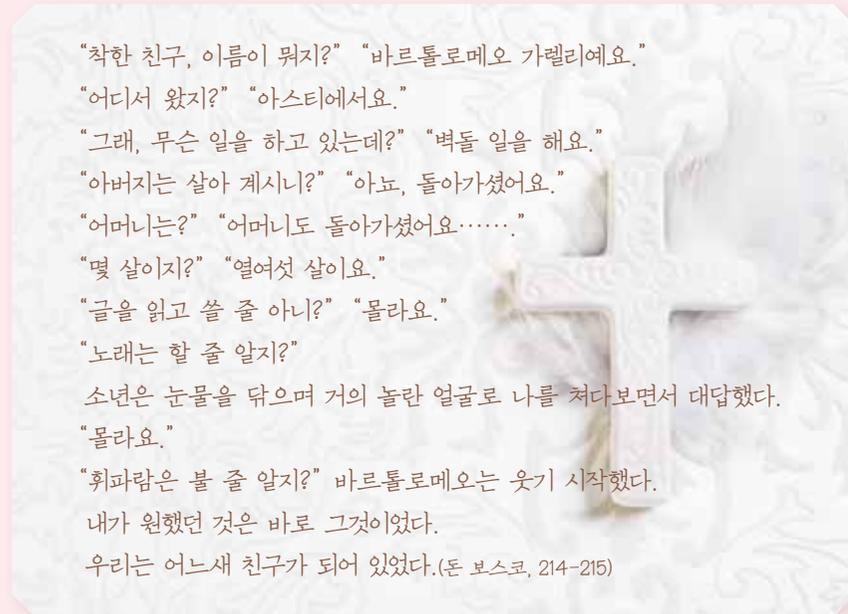


수도회 영성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시오! 살레시오 협력자: 청소년들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

윤종걸 켈레스티노 살레시오 협력자회 한국관구 참사위원장

돈 보스코가 살레시오 성인을 자기 사업의 주보를 선택한 것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성이 이성과 친절이라는 자신의 교육체제와 일치하였기 때문이었다.



요한 보스코 신부
(1815~1888)

이 대화는 요한 보스코 신부(보통 친밀하게 ‘돈 보스코’라고 부름)가 1841년 12월 8일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아침에 있었던 한 소년과의 대화 일부이다. 성당 제의방에 들어갔다가 제의방지기에게 쫓겨나는 궁핍한 소년을 불러 다정한 대화를 나눈 뒤, 성호경을 갖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라토리오*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살레시오 협력자의 신원과 영성, 사도적 활동을 이해하려면 협력자회의 시작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돈 보스코는 이 오라토리오 사업을 추

* 살레시오회 안에서 오라토리오란 돈 보스코의 전형적인 사목 형태로 젊은이들을 맞이하는 집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본당이며,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학교이며, 친구로서 만나고 기쁘게 생활하기 위한 운동장을 한데 아우르는 표현이다.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인 요한 보스코 신부

출처 - <http://symdonbosco2015.com/wp-content/uploads/2015/04/34-DBosco-e-giovani-NMusio.jpg>

진하면서 성직자 동료들과 평신도 협력자들을 모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회(Congregation)라는 명칭 아래 모임을 만들고 교황청에 영적인 특전을 요청하였다.

돈 보스코가 살레시오 성인을 자기 사업의 주보를 선택한 것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성이 이성과 친절이라는 자신의 교육체계와 일치하였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이회는 두 개의 가족, 즉 돈 보스코와 함께했던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성소를 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오라토리오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심회(내부회원)와 세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오라토리오 활동을 도와주는 평신도 협력자회(외부회원)로 분리된다. 나중에 내부회원은 수도회(1859년)로

조직되고, 외부회원은 협력자회(1876년)로 재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살레시오 협력자회는 살레시오 수도회 및 살레시오 수녀회와 더불어 돈 보스코 성인이 직접 설립한 단체로서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교회 공식단체이며 로마에 본부를 두고 평신도와 교구 성직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협력자회는 '살레시오 협력자회'(돈 보스코, 1876)라는 문헌을 통해 "교황께서는 이 회를 제3회와 같은 모습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전통적인 제3회와 다른 점은 제3회가 신심사업을 통해 그리스도교 완성을 도모하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이웃 사람에게 대해서,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애덕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생활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친절한 사랑', '낙관주의', '기쁨의 영성', '일과 절제', '일상의 영성' - 이는 살레시오 정신을 삶으로써 표현하는 몇 가지 어구들이다. 돈 보스코가 거친 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끝없는 인내로써 그들을 받아들이고,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이 개별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착한 목자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이다. 이 '친절한 사랑'은 '이성', '종교', '사랑'을 기둥으로 하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예방교육은 은총의 보이지 않는 힘을 믿는 '낙관주의'에 바탕을 두고, 청소년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이들을 가까이에서 동반하면서 대화로써 설득하며,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실천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교육방식이다. 살레시오 협력자는 스스로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고 동반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어떤 어려움에서도 신뢰를 보낸다는 사실을 돈 보스코는 알았다. 그래서 청소년들로부터 먼저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항상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 있는 현존(감시자가 아닌 친절한 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협력자들은 가정과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친절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살레시오 정신으로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깊은 유대와 형제애를 조성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돈 보스코의 사목적 사랑은 특히 젊음이 넘치는 '활기참'이 특징이다. "기쁨 중에 하느님을 섬기십시오, 달리고 뛰고 소리치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라는 말씀처럼,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가정이었던 오라토리오의 운동장은 이 '기쁨의 영성'이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장소였다. 이 '기쁨의 영성'은 살

레시안의 사도적 열정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필자를 포함하여 협력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무겁고 힘겨운 삶의 밀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의 싹을 보는 것이다. 무디고 차가웠던 가슴이 사랑으로 차오르고, 고집스럽던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 청소년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 만났던 상처받은 아이들이 검정고시 합격 소식, 자격증 취득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아리들은 그야말로 삶이 축제를 새삼 느끼게 한다.

'청소년의 아버지요 스승'으로 선포된 요한 보스코 성인은 지난해 탄생 200주년을 기념했다. 이 희년을 계기로 살레시오 가족은 성인의 삶과 영성, 그의 교육학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심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협력자들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일상의 삶을 기쁘게 살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면서 행복한 살레시오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삶터와 협력자회에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교리교육과 그리스도교적 양성, 청소년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과 단체 활동, 교육기관과의 협력, 성소사목 협조, 사회 - 정치 활동 안에서의 신앙 증거 등의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성덕의 길을 걷는다.

현재 살레시오 협력자회 한국관구는 서울, 수원, 춘천, 원주, 대전, 광주, 창원, 부산, 제주 지역의 25개 지회에서 500여 명의 서약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력자는 3년 이상의 초기 양성과정을 거쳐 서약을 한 후 회원이 된다. 협력자 성소와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협력자회 홈페이지 <http://www.cooperator.co.kr>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메일 asceaokor@gmail.com으로 연락을 취하면 개인적으로 성소 소개를 받을 수 있다. 



순교자들의 영성

정의배 마르코(1795-186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들의 아버지'

김길수 사도 요한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몇 주일씩이나 먹이고 재워 주었습니다. 1854년 고아 구호 단체인 성영회가 조직되자 이를 맡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림/ 성바오로딸 수도회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기다릴 만큼 간절하고 절실한 벗이나 존경하는 스승이 계십니까? 그렇게 그림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은혜롭게도 우리나라 천주교 창립 초기에 신분과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신앙인의 가슴에 별처럼 빛나는 분이 계셨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마음에 사무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이 조선에 입국하였을 때, 너무도 열렬한 신앙과 같고 닦은 덕행을 지니고 계시는 이분을 보시고 그를 서울 회장에 임명하셨는데, 그분은 이 직책을 죽을 때까지 모든 이에게 유익하게 수행 하셨습니다.

베르뇌 주교님은 이분에 대하여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저 노인을 보시오. 저분의 날들은 완전하고 저분의 길은 바릅니다. 나는 천국에서 저분의 자리만큼 훌륭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열성은 놀라웠습니다. 끊임없이 신자와 예비신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성사 받을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고 입술에는 늘 미소를 띠고 주야를 막론하고 그를 부르는 사람들을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내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하였지만 신자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기에 그의 식탁은 간소한 정도를 지나쳤었다고 합니다. 모든 신자가 그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성인처럼 공경하였습니다.

노령화 시대, 노인은 많으나 어른이 그리운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운 그분, 세상에서 이미 신자들이 성인처럼 공경했던 그분, 아버지처럼 사랑했던 그분은 지금 순교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에 생각나는 성인,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부를 만한 그분, 바로 정의배 마르코 성인입니다.

병인박해 때 순교한 정의배는 서울 창동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학을 가풍으로 살아온 집안 출신인 그는, 천주교의 제사 금지 등에 대해 반대하였기에 천주교가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천주교를 중요하지는 않았어도 유학자로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문에 능통해서 작은 서당을 세워 학동들을 가르쳤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일찍 상처하여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1839년 우연한 기회에 앙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의 순교를 목격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형장으로 가면서도 기쁨에 넘쳐 있는 세 성직자의 최후와 신자들의 모습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한 마리 새도 죽음에 이르면 그 우는 소리가 슬프다고 하는데 어찌 사람이 그토록 평화롭고 의연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놀라운 힘을 내게 하는 이 종교에 대해 더할 수 없는 호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정의배는 천주교 교리책을 구해 읽었고, 천성이 곧은 그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에 힘입어 이내 진리를 깨달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천주교인은 좋은 사람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려면 천주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부르짖으며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1845년 한국에 도착한 페레올 주교가 그의 신앙과 덕행을 보고 그를 서울의 회장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몇 주일씩이나 먹이고 재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고아 구호 단체인 성영회가 조직되자 이를 맡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성영회는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봉 장송(Holbon Janson)이 창설한 고아 구호 단체로 죽을 위협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대세를 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영회가 소개된 것은 1852년 말 입국한 메스트르 신부에 의해 서였습니다. 그는 1854년경부터 어린이들을 신자 가정에 맡겨 양육하도록 하고 대세 줄 사람을 임명하는 '성영회' 사업을 전개했는데 정의배 마르코는 이 일을 맡아 아버지처럼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후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 주교가 이 사업을 체계화시켰고, 병인박해로 중단되었던 사업은 제7대 조선교구장 블랑 주교에 의해 재개되어 1885년 3월 서

세상에서 이미 신자들이 성인처럼 공경했던 그분, 아버지처럼 사랑했던 그분은 지금 순교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계십니다.

1894년에는
제물포,
1915년에는
대구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으니
현재 인천
해성보육원과
대구 백합
보육원의
여명을 밝힌
한국의
고아들의
첫 아버지가
정의배
마르코입니다.

울 근당골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1887년 7월에는 한국의 고아 사업을 담당할 수녀들을 파견해 줄 것을 프랑스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이듬해에 도착한 수녀들은 블랑 주교로부터 서울의 고아원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는 제물포에, 1915년에는 대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현재의 인천 해성보육원과 대구 백합보육원의 아득한 여명을 밝힌 한국의 고아들의 첫 아버지가 정의배 마르코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여교우와 재혼을 했는데 부인은 남편의 뜻에 온전히 따라 그의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지극히 가난하면서도 밤이나 낮이나 도움을 청하는 교우들을 지칠 줄 모르고 돌보며 항상 남편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욱더 정의배 마르코를 사랑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영혼의 힘을 성숙시키며 순교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들 훌륭한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 처조카 피영록 바오로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정의배 마르코는 1864년경에 베르뇌 주교 댁에서 다블뤼 주교를 만났으며, 수철리에 사는 배치서와 공덕리에 사는 정복길과 이덕산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1865년 5월 입국한 브르트니에르 신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을 때 양자 피영록이 브르트니에르 신부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의배의 집에는 볼리의 신부, 위앵 신부, 도리 신부도 왕래하여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신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높은 학덕을 바탕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주위의 많은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맡아, 주야를 가리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1866년 병인 대박해가 시작되자 젊은 양자 피영록을 피신시켰으나 정의배 자신은 베르뇌 주교가 체포될 때 함께 체포되었던 이선이의 밀고로 그해 2월 25일 새벽 집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그가 포도청으로 압송될 때 그의 어깨에는 죄인을 표시하는 붉은 오라가 걸려만 있었습니다. 주교가 체포된 뒤 브르트니에르 신부를 지키고 신자들을 도와주려고 숨지 않았던 그는 그렇게 자기 집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군졸 2명이 그의 옷소매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포장은 말했습니다. “이 점잖은 노인을 혼자 견게 내버려두어라. 이분이 도망칠 염려는 조금도 없으니 그저 호위만 하고 또 너무 견지도 말자.” 정의배 마르코의 위엄에 포장도 감복했던 그때, 그의 나이는 일흔두 살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청에서 두 번의 심문을 받았고 의금부로 옮겨져 네 번의 심문을 받고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형리들은 심문을 하며 동료 교우들을 밀고하라고 요구



한국 최초의 고아원(성영회)이 설립되자 성인은 원장이 되었으며 자선사업에 헌신하였다.
그림/ 탁희성 화백

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신자들의 이름만 진술하고 단 한 사람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형리들은 이에 분노하여 더 혹심한 형벌을 가했는데, 모진 매를 견디며 그는 다만 순교의 굳은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거듭되는 포도청의 심문에서 그는 관장에게, “나오리의 눈에는 천주교를 믿는 것이 죽어 마땅한 죄로 보이는데, 저는 그 죄를 저질렀고 또 그 죄를 고집하고 있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거듭 아뢰기만 했습니다.

결국 정의배 마르코는 1866년 3월 10일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처형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11일에 군문효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푸르티에, 프티니콜라 신부와 그가 교리를 가르쳤던 제자 우세영 알렉시오와 함께 새남터에서 72세로 순교하였습니다.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거룩한 노인은 순교지로 갈 때 눈을 아래로 뜨고 입으로는 기도문을 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103위 순교 성인 중 남자 최고령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네 번째 칼에서야 떨어졌습니다. 휘광이들은 “정의배는 효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왕의 명에 따르지 않고 그의 머리를 사흘간 효수했습니다. 그때 그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여서 수영으로 매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중에 돈을 주고 그의 귀중한 시신을 빼내 와 정중히 매장하였습니다.

정의배 마르코는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한국에서 시성되었습니다. 卍



영화 속 '인간과 세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귀향'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아픈 역사를 다시 확인하고, 치유하는 일은 괴롭다. 그래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하고, 단단히 아물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처를 준 자와 상처를 입은 자 모두 두 번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드라마/ 2016.2.24/ 127분
한국/ 15세 관람가/ 감독 조정래

지옥. 죄 지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살아서는 누구도 가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했다. 죽은 자들이 아니다. 1943년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들이다.

같은 시간, 지구 정반대 쪽에서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이었다. 그들 역시 나치가 만든 지옥에서 절규하면서 죽어갔고, 신을 원망했다. 두 지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사람들과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그 지옥을 만든 사람들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역사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거나 외면하기에는 그들과 함께 기억하고,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영화 <귀향>은 그 ‘해야 할 일’의 하나를 이야기한다. 제목이 말하듯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넋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그것이 기도면 어떻고, 굿이면 어떤가. 다큐멘터리면 어떻고, 영화면 어떤가. 누군가가, 무엇으로든 그 길을 열고 닦는 일이라면.

“이제 그만하자.”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마무리했으니, 잊고 미래로 가자고 한다. 그러나 시대상황, 정치적 손익에 따라 바뀌거나 달라지는 역사의 청산은 진실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다. 오히려 아물지 않은 역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만 뿌리는 일이다. 아직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날을 찾아가는 영화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귀향이 증언에 따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면서, 상업적 계산으로 두 감정, 즉 슬픔과 분노를 극대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영화이기 때문에, 귀향 역시 그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일본군의 성 노리개가 된 20만 소녀들이 겪은 '지옥과 치옥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영화가 표현한 슬픔과 분노는 오히려 억제되고 생략된 것일지도 모른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선택이 오히려 영화 귀향에는 위협과 부담일 수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팔순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수없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담은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었다. 그 증언의 기록이야말로 '진실'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은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탄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대표작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또 한 번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면서도 귀향은 구움과 굶판이 벌어지는 우리의 무속과 폭력적인 성을 매개로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운명적으로 만나고 화해하는 드라마적 이중구조를 선택했다. 죽은 위안부 정민(강하나)의 닳이 1991년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은경(최리)에게 빙의되고, 은경이 씻김굿을 하는 노인의 제자가 되어 위안부 할머니 영옥(손숙)과 만나고, 은경을 통해 영옥은 죽은 정민을 다시 만난다. 이 모든 것이 일본군 위안부로 죽은 14세 소녀 정민의 닳을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영화는 중간중간 73년 전으로 돌아가 천진난만한 정민과 그와 함께 영문도 모른 채 만주 길림성 목단강가로 끌려온 조선의 소녀들을 따라간다. 정민은 헤어질 때 어머니가 당부한 "정신만 차리면 돌아올 수 있다. 거창 땅 한득이골로 데려다 주세요요라고 해라."란 말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첫날부터 엄청난 충격과 고통, 절망으로 정민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본군 오장은 어린 소녀들에게 무자비한 육체적, 성적 폭력을 가하면서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성군을 위한 암캐다."라고 말한다. 과장이 아닐 것이다.

사실 귀향이 보여주는 일본군과 그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위안부들의 모습은 새롭지

도 특별하지도 않다. 이미 다른 영화에서 보았거나 증언을 통해 알고 있다. 때문에 영화가 일본군과 위안부들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줄 때는 충격보다는 참담함이 앞서 눈을 감아버린다. 비극성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자극적 성적 묘사로 느끼거나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귀향에는 물론 영화적 우연과 설정도 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본군들이 위안부들을 학살하려는 순간 광복군이 기습을 하고, 정민과 그녀가 언니라고 부르는, 지금은 영옥이란 이름으로 사는 영희(서미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나, 쓰러진 일본군 오장이 기어이 다시 일어나 총을 쏘고, 정민이 영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신 그 총을 맞고 죽는다. 정민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다나카를 통해 '지옥에도 인간은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그렇다고 위안부의 비극성과 일본군의 잔학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귀향은 마침내 은경의 빙의와 굶을 통해 죽은 정민의 닳을 불러내 "차마 마음은 그곳에서 못 돌아왔다."는 영희와 다시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둘

은 "우리 이제 집에 가자."며 함께 돌아온다. 그들을 따라 죽은 위안부들의 영혼도 모두 나비가 되어 고향의 품에 안긴다. 그것으로 그들의 한과 역사가 남긴 과오가 완전히 씻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조차 쉽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영화로 만들기 위해 투자자를 찾았으나 실패해 우여곡절 끝에 일반시민 7만 5,270명의 후원금(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했다. 어렵게 완성한 후 개봉을 하면서는 정치적 상황으로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했다.

아픈 역사를 다시 확인하고, 치유하는 일은 괴롭다. 그래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하고, 단단히 아물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처를 준 자와 상처를 입은 자 모두 두 번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의 영화 <귀향>에 많은 관객이 물린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아가다의 음악편지

'붉은 머리의 사제' 비발디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비발디의 교회음악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을 꼽자면, 영화 <샤인Shine(1996)>의 수록곡이었던 소프라노 독창을 위한 모테트 '세상에 참평화 없어라.'이다.



봄이 오면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해서든 듣게 되는 클래식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작품으로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비발디의 <사계> 중 '봄'입니다. 얼어붙었던 시내가 다시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생동감 넘치는 '봄'을 들으면, '아, 계절이 드디어 바뀌었구나!', 귀로도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사계>의 작곡가로 너무나도 유명한 비발디는 가톨릭 성음악으로도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긴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교회음악 작곡가로서의 비발디를 소개하고, 그가 작곡한 주요 교회음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베네치아 피에타 여학교에서 열린 음악회, 1780년, 파르디 그림

비발디(Antonio Lucio Vivaldi, 1678~1741)에겐 'Il Prete Rosso'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prete'는 '성직자', 'rosso'는 '붉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이 별명은 '붉은 머리의 사제'로 옮겨지는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 소속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들로 태어난 비발디는 음악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다가 25세가 되던 해인 1703년에 가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발디는 교회가 아닌, 자선시설에서 소임을 맡게 됩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타고난 체질이 약했고, 천식까지 있어서 미사 집전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요. 미사 중에 악상이 떠오르자, 이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놓으려고 갑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지는 걸 보면, 음악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발디가 일한 자선시설은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를 위한 보금자리였던 피에타 여학교(Ospedale della Pietà)였습니다. 비발디는 그곳에서 소녀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고, 학교의 기금을 마련하는 연주회까지 맡아서 일했습니다.

피에타 여학교의 음악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

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주가 당시 베네치아를 찾아오는 유럽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될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연주 횟수가 늘어나면서 비발디는 새로운 음악을 끊임없이 작곡해야 했고, 그런 빠박한 일정 속에서 다양한 기악 협주곡들을 비롯해 다수의 모테트, 오라토리오 등의 교회음악들도 나오게 됐죠.

비발디의 교회음악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을 꼽자면, 영화 <샤인Shine(1996)>의 수록곡이었던 소프라노 독창을 위한 모테트 '세상에 참평화 없어라'Nulla in mundo pax sincera'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샤인>은 부친의 과도한 기대와 집착으로 정신질환의 고통을 앓았던 한 천재 피아니스트가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유로워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 영화인데요. 영화 최고 명장면으로 꼽히는, 주인공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파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에서 흘러나왔던 선율이 바로 '세상에 참평화 없어라'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세상에 참평화 없어라.
순수와 진실, 이것은 다정한 예수, 당신에게 있으니.
고뇌와 고통 속에 편안한 영혼이 있으며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순결한 사랑이여라.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가 평화롭고 온화하기 그지없는 음악이었다면, 영화 <샤인>에 일부 삽입되었던 또 한 곡의 비발디 작품 <글로리아> RV589는 천상 기쁨의 찬란함이 가득한 음악입니다. '글로리아'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미사 통상문의 '대영광송'을 가사로 하는데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가사에 맞게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분위기로 연주가 됩니다.

두 명의 소프라노와 한 명의 알토 독창자, 혼성 4부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이 작품에서는 특히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특별히 현악기 선율을 작곡하는 데 탁월했던 비발디의 능력이 합창과 어우러지는 기악 반주 부분에서 돋보입니다. 화려한 기악 반주가 성악 성부와 잘 어우러지면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는 더욱 높아졌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봄. 이번 봄에는 생동감 넘치는 비발디의 성음악 작품들로 행복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



영화 샤인 포스터



영화음악 세상

영화 '미션 Mission' 가브리엘의 오보에

정성엽 바오로 오르가니스트

아름다운 순차적 선율, 자연스러운 호흡과 프레이징으로 오보에라는 악기가 가진 악기의 특징점을 최상의 영역에서 잘 뽑아낸 이 작품은 세계적 영화음악 감독의 저력이 나오는 이유이다.



로버트 드 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등의 명배우들이 출연한 톨랑 조페(Roland Joffé) 감독의 1986년작 영화 '미션'은 스토리와 연출력 그리고 웅장한 스케일만으로도 유명한 영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삽입된 영화음악으로 더욱더 잘 알려진 작품이다. '황야의 무법자, 시네마 천국,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등으로 알려진 세계 최고 영화음악 감독, 그리고 오랫동안 오스카상과 인연이 없다가 2007년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에 이어 올해 드디어 'The hateful eight'으로 2016년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수상한 불멸의 작곡가 엔리오 모리코네가 그 주인공이다.

이 영화에 삽입된 모든 음악을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이 영화의 메인 테마음악으로 알려진 '가브리엘의 오보에(Gabriel's oboe)'만 이야기하도록 하자.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러 '넬라 판타지'라는 이름으로도 편곡된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언제 들어도 몽클하고 목이 메는 듯한 애절함과 동시에 짠한 감동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몽클하고 목이 메는 듯한 애절함과 동시에 짠한 감동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살펴보자. 영화는 18세기 중반 남아메리카의 브라질과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접경지역에서 선교마을들이 중앙 통치 세력에 의해 추방당하지만 그곳에서 처음부터 목숨을 버려가며 선교했던 예수회 신부들이 결국에는 추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지켜가며 순교하는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영화는 1750년, 유럽에서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서거한 해이고 따라서 음악사적으로 바로크에서 고전시대(classical period)로 넘어가는 중요한 해인 이때부터 시작한다. 가톨릭 예수회 사제인 가브리엘 신부가 남미의 원주민 과라니족을 선교할 때 손에 하나 쥐고 갔던 악기는 바로 오보에라는 악기이다. 이 오보에로

원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악기를 이용한 주제음악이 바로 '가브리엘의 오보에'인 것이다.

오보에는 더블리드, 즉 갈대처럼 생긴 리드를 몸통에 부착하여 입술과 몸통 사이에 작고 얇은 통로를 통해 바람을 전달하고 그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목관악기 군에 속하는 악기이다. 따라서 목관악기 가운데 가장 소리내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악기이지만 소리를 내면 다른 어떤 악기들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압도감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녹이는 악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름답고 까다로운 음색과 전체적으로 음색이 고르지 않은 악기의 특색으로 오보에를 위한 곡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곡은 잔잔하게 배경을 형성하는 현악기군과 금관이나 타악기 등의 절제된 형식미로 독주악기인 오보에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는데 특히 여린 다이내믹에서 호흡을 길게 내야 하는 어려움으로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곡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순차적 선율, 자연스러운 호흡과 프레이징으로 오보에라는 악기가 가진 악기의 특징점을 최상의 영역에서 잘 뽑아낸 이 작품은 세계적 영화음악 감독의 저력이 엿보인다. 각박하고 숨 한번 제대로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여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시대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영화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휴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 1,5)



오보에의 리드



평신도 양서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데니스 린/ 마태오 린 지음
김인호 장미희 옮김/ 성바오로
128x188/ 136면/ 9,000원

성찰 - 내 삶의 양식

성찰을 함으로써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성바오로에서 내놓은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으로 무엇을 성찰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내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위안(consolation)과 메마름(desolation)의 순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손희송 지음
생활성서사
128x188/ 148면/ 10,000원

절망 속에 희망 심는 용기

이 책은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군상의 인물들이 2천 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게 한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도자, 선동에 휩쓸리는 군중, 앞장서서 배신하는 사람, 두려움 때문에 스승을 부인하는 제자 등 이 책은 다양한 인물들 통해 내 신앙과 삶을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한다.



피델리스 루페르트 지음
정하돈 옮김/ 분도출판사
150x210/ 248면/ 14,000원

노년을 위한 마음 공부

유년기나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그에 걸맞은 성장이 필요하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로 늙어버리기 전에 제때에 나이 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놓아버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노년을 위해 그리스도교 안팎의 오랜 전통과 아름답게 나이 든 이시대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았다. 노수도자의 깊은 성찰을 담은 이 책은 자유롭게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크리스토프 신보른 지음
신동환 옮김/ 바오로딸
148x210/ 268면/ 10,000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만났습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게 바오로딸이 기획한 책이다. 특히 이 책은 고해성사를 하느님 자비라는 관점에서 올바르게 바라보도록 돕는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전파한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묵상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교리적, 신학적 보편타당성을 사목적, 영성적 차원에서 설명함으로써 신자들 누구나 다가가서 하느님의 자비를 올바르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엘리자베스 루카스 지음
신동환 옮김/ 가톨릭출판사
127x188/ 192면/ 8,000원

기쁨 사용법

엘리자베스 루카스는 이 책을 통해 기쁨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기쁨을 찾고 누리는 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들려준다. 기쁨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느라, 직장과 육아 등에 시달리느라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현대인들에게 기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 보도록 따뜻하게 조언한다.



정미연 지음
으뜸사랑
175x225/ 240면/ 15,000원

하느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그리스 화첩기행에 이은 서양 화가 정미연의 두 번째 여행기이자 자전적 에세이집이다. 실 크로드와 아프리카 인도 등지를 여행하면서 저자는 너무도 작아 보잘것없는 인간의 시간 위에 하느님의 시간이 포개어지는 순간,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음을 체험한다.

하느님께서 미약한 인간에게 펼쳐놓으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에게 들려오는 끝없는 의문속 목소리를 듣고 글과 그림으로 하느님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 보인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이관진 베드로 고문 장례미사, 평협장으로 임수

한국평협의 제9, 10대(1992~1996년) 회장을 역임한 환주(歡洲) 이관진 베드로 회장의 장례미사가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임수됐다. 지난 12월 28일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 군중교구장 류수일 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유족과 평협임원 등 지인 600여 명이 함께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한 장례미사는 생전 애덕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고인을 기억하며 시종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장례예절은 미사와 영결식으로 이어졌는데 미사를 주례한 정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고인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받아주시어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에 가셨다.”며 고

인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신앙만을 위해 살아온 충실한 신자, 참다운 기업인”으로 회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참여했던 교회 내 단체들이 큰 발전을 이루도록 성심껏 봉사한 것에 감사했다.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며 죽음의 비정함과 허무함을 대신할 것이 없겠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새로운 삶으로의 희망이 된다.”며 “하느님의 품안에 고인을 맡겨드리자.”고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영결식은 최홍준 고문의 약력보고와 권길중 장례위원장의 고별사, 유족대표의 인사로 이어졌는데 권 위원장은 고별사에서 어린 시절과 교회 활동에 대한 증언들을 예화로 소개하며 남달랐던 고인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떠올렸고, 고인의 유지를 이어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밝혔다. 유족대표로 고인의 장남인 이기환 씨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인을 위하여 기도 중 기억해 줄 것”을 부탁했다.

● 2016년도 제49차 한국평협 정기총회 개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과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행사에 앞장서기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억하는 신앙선조 현양을 위한 사업을 열기로 의결했다.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는 모습, 정치적 갈등과 남북의 대립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하고 이웃을 존중하여 가정이 복원되고,

교회공동체가 복원되어 우리들의 빛이 사회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평협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자신부터 깊이 성찰해야 함을 강조했다.

16개 교구평협과 전국단위 평신도사도직 단체로 구성된 총회 참가자 70여 명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등을 승인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한국평협은 수원(4월), 서울(7월), 인천(9월), 마산(11월) 평협 주관으로 2차례의 상임위원회와 2차례의 상임위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지속적 확산과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억하는 신앙선조 현양을 위한 활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원개선을 통해 권길중 현 회장이 연임되었고, 감사 2인을 선출하는 등 주요 임원을 선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11명의 교구평협 회장과 단체장에게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기념미사에서 염 추기경은 “우리 신앙 선조들은 박해 상황에서 교회 가르침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용서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닮고자 했다.”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

각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진다. 신앙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평신도의 사명이 선택이 아닌 본질임을 깨닫게 해준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6년(제46회) 정기총회 개최 권길중 회장 유임 결정 및 리더십 과정 개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16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2016년도(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단체장과 개인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서울평협이 2016년도 사업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평신도 아카데미’를 개설해 상반기에는 리더십 학교를 하반기에는 공의회학교를 각 14주간씩 열고, 정신계몽 실천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는 등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정기총회는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가 주례하는 기념미사로 시작

됐다. 조 신부는 강론에서 “올해는 교회 가르침을 토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인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평협이 개설하는 평신도 아카데미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그러한 열정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내가 속한 단체 안에서 체험을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자비를 전하는 삶이 될 것”이라며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5년도 결산과 사업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3호 안전인 임원개선에서 회칙에 따라 임기를 마친 권길중 회장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후보자 승인으로 제21대 회장으로 유임이 결정되었고, 감사에는 이병순 미카엘, 양두석 토마스 형제가 새롭게 선출되었다. 권길중 회장은 수석부회장에 조기연 마르티노 형제를 추천하여 회원들의 승인을 얻으면서 제21대 회장단 구성을 발표했다.

권 회장은 “지금 우리 세상의 징표를 살펴보면 온통 갈등과 분열이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일치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올해 자비의 희년 은총으로 살며, 교구장 사목교서와 같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평협의 임원으로서 손색없

는 1년을 살 것이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매진하기로 약속하자.”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21대 서울평협 회장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길중 바오로 ▲수석 부회장: 조기연 마르티노 ▲부회장: 박은영 이사벨라,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신호철 베드로, 허정애 엘리사벳 ▲감사: 양두석 토마스, 이병순 미카엘 ▲사무총장: 박철용 베드로 ▲사회사도직연구소장: 오용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 **서울평협에서 평신도 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과정’ 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풍 신부, 이하 ‘서울평협’)는 평신도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과정을 3월 7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15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개설한다.

이번 리더십과정은 2007년부터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강령인 ‘공의회과정’을 실시해 오던 서울평협이 그동안 교회문헌을 처음 접하는 신자들에게는 ‘공의회과정’이 다소 어렵고,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신학, 교회법, 인문학 등의 교육도 추가됐으면 하는 주변의 요청에 따라 신학교 교수를 중심

으로 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15주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강의 가운데는 특히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자비의 희년과 평신도 사도직’(조규만 주교)과 ‘다종교 사회 안에서의 교회’(노길명 교수), ‘가톨릭과 개신교’(송용민 신부), ‘그리스도인의 삶-사회교리’(유경춘 주교) 등 기존 신학과 교회법 외에도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했지만 주위에서 쉽게 답을 얻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담아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평단협 제46차 정기총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대전평단협)는 12월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교구 내 94개 성당과 19개 단체에서 310여 명의 본당 회장단과 사도직단체장, 대전평단협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유희식 라자로 주교의 주례로 개최미사를 봉헌하고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는 오전 10시 교구장 주교의 2016년 사목교서 “말씀과 성사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해”에 대한 해설 특강을 시작으로 개최미사로 이어졌고, 오후부터 시노드 사무국장 한정현 신부의 강연과 “사목교서에 따른 실천사항”라는 내용의 사목기획국장 김명현 신부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제46차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대전평단협이 매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아산지구와 대전남부지구에 격려금을 전달하였고, 2016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지구 사목회장 회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대전평단협)는 교구내 14개 지구 본당 사목회장과 평단협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지구 사목회장 회의”를 2월 13일 (토) 오전 10시 교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교구장 유희식 주교와 사목기획국장 김명현 신부, 박원규 회장 외 27명의 지구회장 및 평단협 상임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 본당 생명분과 신설 확대’, ‘한생명운동 및 카리타스한생명대축

제 개최 지구 논의’ 등 2016년 평단협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간 복음화계획과 예산 심의 등 현안’을 위한 연수를 강원도 홍천소재 양덕원성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의거, 한해의 복음화계획 검토 확정 및 예산을 편성하고, 각 본당과의 연계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금년도에 수원교구에서 실시하는 ‘한국 평협 상임위원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성장하는 수원교구를 홍보하는 한편,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이한 교구민이 내·외적 복음화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6개 교구 사도직 단체를 잘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는 여성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계획안도 추진하였다.

이근덕 신부는 연수 중 봉헌된 미사 강론을 통해, “교구와 교구민을 위하여 평신도 사도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 자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한 복음화 사업은 크고 작음이 없음을 강조하며, “큰 행사에만 편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작은 단체에서도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과, 평신도 사명인 사제직과 예언자직, 왕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평신도 사도직 단체 연수 및 사목방문



수원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연수 및 사목방문이 2월 27일 교구청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교구 26개 평신도단체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이근덕 신부의 강연과 각 단체의 사목방문자료 검토, 그리고 총대리 이성호 주교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최효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영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쇠신하는 가운데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수원교구의 비전을 맞춰나갈 때 수원교구는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참여해서 소통하고 쇠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근덕 신부는 강의에서 “사랑의 방법은 내가 바라는 것을 벗어

나 하느님의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며, 이는 공포와 욕망과 충동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논어에 있는 “극기복례(克己復禮) 위인지본(爲人之本)”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여 자신을 이겨내고(克己) 하느님의 선한 본성을 회복(復禮)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는(爲人) 사순시기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성호 주교는 특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화평의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담화(2015년 2월 7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정에서의 대치될 수 없는 여성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성들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지의 모후 수원 레지아 신년미사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는 1월 3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레지아 및 꼬미시옹 간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

로 신년미사를 봉헌했다.

이용훈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해’를 통해 이웃과 세상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또, 이와 관련해 “자비의 해는 구체적으로는 선행을 하는 것”이라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봉사, 자선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레지오 단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673차 월례회의를 주관한 이근덕 신부는 훈화를 통해, “많은 결심과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용인 CLC 희망학교
일일교사 체험기**



1월 19일 용인에 있는 CLC희망학교에서 교장 최혜란 선생이 부탁을 해 직업체험캠프에서 사진작가 체험 교육을 했다. 현재 희망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부모 자녀들이어서 처음 왔을 때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교육의 힘은 크다. 한 아이가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수많

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바뀔 수 있다. 최 교장에 의하면 2016년 용인 CLC희망학교에 현재 중학생인 대상을 확대하여 고등학생 반을 신설할 예정이라 한다.

CLC(Christian Life Community)는 이냐시오 영성을 사는 국제 가톨릭 평신도 공동체로 세계 곳곳에서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투신하고 있다. 한국 CLC는 1989년에 설립되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 산하의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CLC희망학교는 부모의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끊어내고자 빈곤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고교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 **수원대리구 운전기사사도회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수원대리구 운전기사사도회는 1월 20일 교구청에서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80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은 교구장 대리 문희종 주교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문희종 주교는, 항상 밖에서 교구 행사를 도와주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회장 염도환 씨는 인사말에서 “1986년 1월 16일 9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신앙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단체로 성장했다.”고 소개하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어진 시상식에서 문희종 주교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를 대신하여 30년간 봉사해 온 이무웅 바오로, 최원현 루도비코 2명의 회원에게 교구장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이대희 신부는 전임 회장 3명에게 공로장을 수여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차 정기 모임, 단체장 신년하례
및 임명장 수여식**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월 5일 교구장 이기현 주교와 단체장 16명이 함께한 신년하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강신모 지도신부는 신년사를 통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의정부교구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구 단체장들이 합심·단결해 의정부교구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힌 후 단체장 소개와 단체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신년하례에 참석한 이기현 주교는 신년 인사를 통해 “원숭이띠의 해를 맞아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고, 자비의 희년을 맞

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역량을 강화해 소공동체의 연계가 중요하다. 활발한 공동체 참여와 책임감으로 어느 해보다 값진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한효수 회장이 처음으로 단체장들과 신년하례를 겸한 자리로 신임 장해진 부회장을 포함하여 6명의 단체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1차 정기총회**



부산교구 평협은 지난 1월 31일(일) 오전 9시부터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부산평협 제41차 정기총회를 실시하여 도용희(이기대본당) 형제를 39대 부산평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교구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의 ‘교구장 사목지침’ 해설 및 특강을 시작으로 ‘기초공동체 복음화 실현방안’ 토론 및 발표를 통해 교구장 사목지침 실천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미사강론에서 “매우 이

기적이고 고착화된 자기만의 프레임 가지고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참석한 회장단에 권고했다. 또한 선교상, 평신도 교리교사상, 사랑상, 봉사상을 시상하여 한 해 동안 교구 내에서 분야별 공이 큰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을 하여 공로를 격려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6차 정기총회와
복음화대상 시상**



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김덕곤)는 제46차 정기총회와 복음화대상 시상식을 1월 30일(토) 마산웨딩그랜드에서 교구 내 본당 회장, 교구단체장 및 임원 185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다. ‘교회의 희망 평협인’이라는 주제로 배기현 총대리 신부의 특강과 지구별 오리엔테이션, 교구 평신도사도직 활동지침서 발표에 이어 제46차 정기총회와 평신도선언을 하고,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복음화대상 시상식과 파견미사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이날 총회에서 제24대 임원으로 교구평협 총회장 안상덕, 수석 부회장 한일문, 감사 류태수, 김재권 형제가 새로 선출되었으며, 복음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선교대상’으로 단체부문에 중동본당의 천상은총의 어머니Pr., 개인부문에 김경자 자매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회두대상’에는 단체부문에 사파본당의 은총의 샘Pr.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개인부문에서는 대상자가 없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과 신년하례식**



천주교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는 1월 1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 및 교구단위 제단체 대표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과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한 후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새해 첫날을 맞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가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과 함께 축복을 하였다.

● 평협 및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평협은 1월 30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과 교구단위 제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그리고 제34대 임원 선출에서는 나현식 회장이 연임되었으며, 감사는 조호권, 우준상 형제가 선출되었다.

총회에 앞서 자비의 희년을 맞아 '자비의 희년과 교회봉사자'라는 주제로 국춘심 수녀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여성위원회는 1월 23일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임원으로 위원장에 김명자, 감사 권순복 자매를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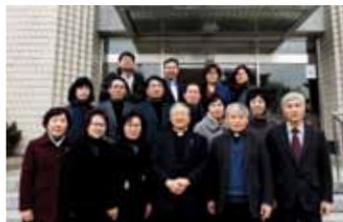
● 평협 및 여성위원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

광주평협은 2월 19일 교구청 소성당에서 평협과 여성위원회 신·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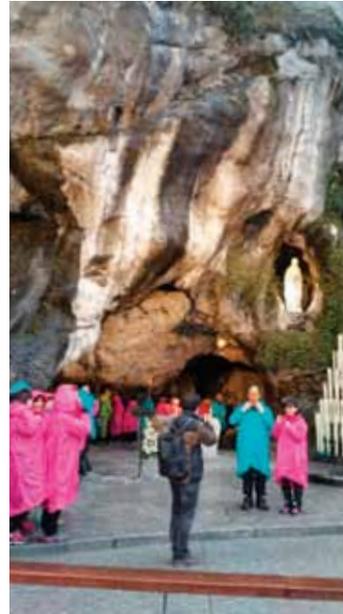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임기를 마친 임원에게는 공로패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신임 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평신도사도직 단체 교구장 사목방문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교구 산하 평신도사도직 단체를 사목방문하였다. 이번 사목방문에는 세나투스, 성요셉아버지학교, 파티마의세계 사도직, 성령쇄신봉사자회, M.E, 다락방기도모임, 지속적인성체조배회, 꾸르실료,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순교자현양회 등의 단체와 평협, 여성위원회가 포함되었다. 교구장은 각 단체들의 활동들을 보고받고 임원들을 격려했으며,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각 단체의 카리스마에 맞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꾸르실료 산티아고 성지순례



광주대교구 꾸르실료(주간 도상구, 담당사제 고재경 신부)는 2월 15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담당사제를 비롯한 사제 5명, 수도자 2명, 평신도 79명 등 꾸르실리스따 86명이 참여하여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성지순례 중에 100여 킬로미터를 도보로 순례하면서 꾸르실료 정신을 새롭게 다짐하기도 하였다.

전국 가톨릭 경제인협의회

● 2016년도 전국 가톨릭 경제인협의회 정기총회

2016년 1월 22일~23일 경남 양산 정하상바로 영성관에서 부산 교구 가톨릭 경제인회 주최로 전

국 가톨릭 경제인협의회 2016년도 정기총회가 6개 교구 94명(부산 65명, 서울 12명, 인천 3명, 의정부 4명, 대구 7명, 청주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윤대인 회장의 전국 경제인회의 당연직 회장 추대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추진하였다. 특별히 금년 총회는 대구 및 부산교구 경제인회의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 2016년도 가톨릭 경제인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6년 2월 23일 가톨릭 경제인협의회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본회 사무처에서 윤대인 안드레아 회장과 담당사제인 임인섭 신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임인섭 신부는 “신앙적인 면에서 자신을 성화시키면 모든 교회 활

동이 의미를 갖게 되고 모여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는 가운데 신앙 성숙의 토대가 굳건해진다.”고 격려했다.

토의 안건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지”의 평협 바자회 참여 요청과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2월 22일 초찬 세미나, 경제인회 울뜨레야 설립, 회원 정리 등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공지사항으로는 3월 13일 김수환 추기경과 고 김옥균 주교 추모미사, 반석회 행사 일정, 교황청 100주년 기념재단 국제회의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 50주년 출판 기념식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는 청주 교구청 내에 있는 연수원에서 지난해 10월 10일 뜻깊은 50주년 출판 기념식을 가졌다.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라는 빈첸시오 성인의 뜻을 받들어 파리의 학자이며 영성가인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이 이 회를 설립하여 전쟁의 속에 피폐해진 한국이라는 나라에 물질적 자원과 함께 가난한

이들의 추운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심어준 고마운 회다.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 당시 뉴질랜드의 도움으로 1955년 청주교구 교현동성당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50년이란 시간 속에서 거듭되는 회의 발전을 재조명해 보며 북한외의 감사 사업으로 동포애를 실천한 선배들, 천사의 집 후원으로 건립된 복지시설들을 다시 찾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더욱 힘을 쓸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다가 올 100주년을 기약하며 축배를 들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이사회 황용현 전 지도신부와 전 회장들과 현 김태영 회장을 비롯하여 15개 교구의 회장들, 한국이사회 임원진들을 비롯하여 5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김현조)는 지난 2월 13일 서울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협의회 임원과 각 교구 회장단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이어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이 있었다. 또 봉사자협의회는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성령 안의

생활화를 충실히 실천하자'는 활동 목표를 정하고, '성가집 발행과 봉사자 교육 교재 발간', '봉사자 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 봉사자 양성', '각 교구 성령대회 지원', '2017년 성령강림 50주년 기념 준비'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승인했다.

● **성직자·수도자 묵상회 개최**

사제생활과 수도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제146차 '성직자·수도자 성령 묵상회'가 지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동안 경남 양산 '영성의 집'에서 열렸다.

이번 성령묵상회에는 전국에서 53명의 성직자·수도자들이 모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성령묵상회를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정기총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정기총회가 2016년 1월 29일, 순천 성가롤

로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에는 전국에서 대의원 38명이 참석해 2015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승인 건을 논의하였다. 회의 전에는 대의원들과 함께 개최지인 성가롤로병원 투어를 진행하였으며 회의 후에는 신병순 미래의료산업협회회장의 '한국의 미래의료산업'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제38회 정기 대의원 총회,
제59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2016년 1월 30에서 31일까지 합정동 마리스타교육회관에서 전국교구의 가톨릭 간호사 124명이 함께 모여 제38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피정을 "행복한 신앙인, 간호사"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제19대 회장으로는 제18대 회장인 홍현자 수녀가 연임되고, 제1부회장에 박호란 교수, 제2부회장에 임성자 간호국장이 피선되었다. 홍 회장은 협회가 회원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담당사

제인 이경상 신부가 집전한 미사로 총회를 끝냈다. 이 신부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예수님 두 분 다 '사랑은 언제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름답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2016년 가톨릭 학교
신자 교사 연수**



가톨릭 학교 신자 교사 31명은 2016년 1월 19일~22일 경기도 시흥 성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겸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한국가톨릭 학교의 신자 교사로서의 사명과 신앙 쇄신을 돕기 위해 강의, 성찰, 묵상, 나눔 및 발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사명문 작성 등으로 진행된 피정 겸 연수로서 참가자들에게는 모두 직무연수 30시간이 주어졌다.

Editor's Letter

에디터 레터

죽어 씌운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중략)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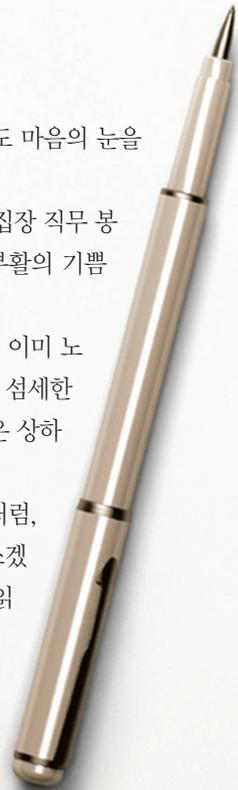
구상 세례자 요한 시인(1919~2004년)의 신앙시집 「두 이레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에 있는 '부활송(頌)'이란 시입니다.

2016년 봄호부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신도')지 편집장 직무 봉사할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김선동 루카 편집장께 감사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이 독자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2,000여 년 전에 이미 노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색을 추구할수록 인간의 눈은 멀게 되고, 섬세한 소리를 추구할수록 인간의 귀는 멎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할수록 인간의 입은 상하게 된다.”

“아무런 요란도 수선도 떨지 않으며 저마다 새로운 봄치장을 하는” 초목들처럼, 담담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감각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잡지를 만들고자 힘쓰겠습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는 2016년, 봄호의 주제는 '자비'입니다. 기쁘게 읽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6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oo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사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이익태	마르코	7romeo@naver.com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